

손현경 기자 son89@

“국민께 희망을”... ‘49전50기’ 임성재, PGA 첫 입맞춤

혼다 클래식서 2위와 1타차 우승 ‘한국인 사상 7번째’
“코로나19로 힘든 한국에 자랑스러운 소식 전해 기뻐”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데뷔 후 첫 우승컵을 차지했다. 한국인 선수가 PGA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임성재가 통산 7번째다.

임성재는 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파70·712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6타를 적어냈다.

최종 합계 6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2위 매켄지 휴스(캐나다)를 1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오르며 우승상금 126만 달러(약 15억2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임성재는 PGA 투어 데뷔 후 자신의 50번째 무대에서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9월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다. 그는 이번 우승으로 최경주, 양용은, 배상문, 노승열, 김시우, 강성훈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7번째로 PGA 투어 우승을 맛봤다.

이번 대회 코스인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의 15번부터 17번 홀을 일컫는 ‘베어 트랩’은 난코스로 유명한 홀이지만, 임성재는 이 세 홀에서 2타를 줄이며 1타차 우승을 일궈냈다.

이날 우승을 차지한 임성재는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한국 선수로서 한국인 모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라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항상 우승 기회가 몇 번 있었고 상위권에 자주 있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오늘 경기를 잘 마무리한 것 같다”며 “앞서 몇 차례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렇게 우승을 빨리하게 돼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우승으로 그의 세계랭킹도 25위로 경종 뛰었다. 지난 주 34위를 기록했던 임성재는 순위를 단숨에 9계단 끌어올리며 자신의 개인 최고 랭킹을 기록했다. 임성재의 기존 최고 랭킹은 32위였다.

한편, 이번 우승으로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출전을 확정된 임성재는 “다른 메이저 대회는 다 참가해 봤는데, 마스터스는 올해 처음으로 출전하게 됐다. 꼭 한 번 예선을 통과하고 싶다. 메이저에서 좋은 성적을 내보고 싶는데, 그게 마스터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임성재가 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에서 열린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미지센서로 반도체 시장 주도” 이동재 대표의 큰 그림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

‘파운드리 호실적’ SK하이닉스시스템IC 지난해 순익 766억
李 신임 대표 “시스템 반도체 수요 대응 R&D 투자 확대”각오

SK하이닉스 파운드리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가 출범 3년째인 지난해 순이익 7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순항했다. 이 회사 이동재 신임 대표는 투자와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미래 준비를 가속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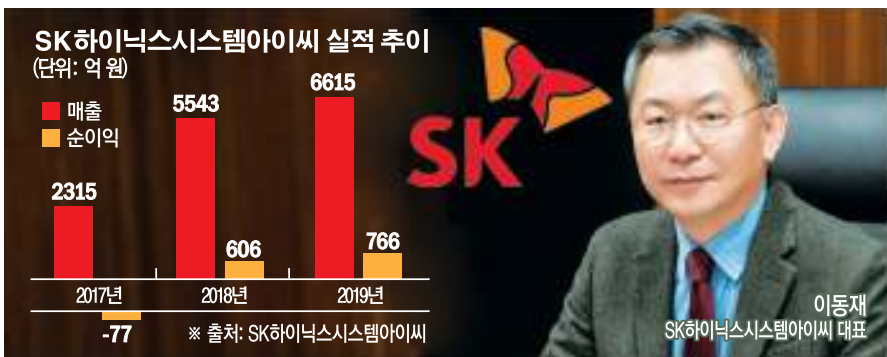
2일 SK하이닉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는 지난해 매출 6615억 원, 순이익 766억 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에서 분사해 파운드리 사업을 맡고 있는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는 출범 첫해인 2017년 77억 원의 순손실을 낸 뒤 1년 만에 순이익 60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예상보다 빨리 흑자 경영을 이뤄내 기대감을 키웠는데, 지난해 반도체 불황에도 전년보다 순이익을 160억 원 늘렸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신임 대표이사에 오른 이동재 부사장을 중심으로 성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CEO 메시지를 통해 “2017년 7월 분사 후 8인치(200mm)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환경에서 반도체 산업은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G,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포트폴



리오 다변화, 지속적 투자와 R&D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과 지역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기대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스템반도체를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사

업을 총괄해온 인물이다. 2014년 SK하이닉스 근무를 시작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을 맡았고, 2017년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가 설립됐을 때 함께 이동해 최고운영책임자(COO) 역할을 맡아 왔다.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는 200mm 웨이퍼 공장에서 이미지센서(CIS), 디스플레이 구동드라이버IC(DDI), 전력관리칩

(PMIC) 등을 주력으로 위탁 생산한다. 이들 제품은 최근 스마트폰 외에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제품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스템아이씨는 이미지센서(CIS) 전문가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핵심인 CIS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기업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이미지센서 사업을 키우기 위해 일본에 차세대 CIS 연구개발센터도 설립했다.

CIS는 ‘전자기기의 눈’으로 불린다.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 이미지로 저장해 다루는 반도체다. 스마트 TV나 의료, 보안과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이자, 센서 반도체 시장에서 유망한 부품으로 주목받는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드에 따르면 전세계 이미지센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55억 달러(18조60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215억 달러(25조800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백화점그룹 h point

고객과 함께
생활 속 친환경을 실천합니다

-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면세점
- 한섬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Hmall
- 더현대닷컴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이 봉투를 바다거북이 사랑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바다 생물들에게 특히 위협적인 플라스틱 공해를 줄이기 위해 땅속에서 6개월 이내에 스스로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 봉투를 사용합니다

Green Friends

실적 부진에 코로나까지… ‘신용 강등’ 쓰나미 덮칠라

기업 신용등급 ‘잔인한 봄’

“올해 신용등급 대란이 다시 올 수 있다.” 최근 신용평가 회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코로나 19 사태 등의 여파로 실적·재무구조가 악화한 기업들에 경고장(부정적 등급전망)을 보내거나 불량 기업으로 낙인(신용등급 하향)을 찍고 있다. 한 신용평가사 A팀장은 “불안한 대내외 환경에 신평사들이 보다 발 빠르게 실적을 반영해 등급을 조정하면서 올해 정기평가로 인한 신용등급 조정은 3~4월에 집중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2일 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국내신용평가사 3곳에 따르면 올 초부터 2월 말까지 무보증 회사채 기준 △한신평 4곳(이마트, LG디스플레이, 에코마이스터, OCI) △나신평 3곳(에이유, LG디스플레이, 이마트) △한기평 4곳(에이유, LG디스플레이, 현진소재, 에코마이스터)의 기업 등급을 내렸다. 1월과 2월에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기업도 3곳이나 된다. 한신평은 두산인

2020년 1~2월 신용등급·전망 하향 조정 목록

한국신용평가			
	회사명	직전등급	현재등급
등급변경	이마트	AA+	AA
	LG디스플레이	AA-	A+
	에코마이스터	B-	B-↓
	OCI	A+	A
전망변경	두산인프라코어	BBB(긍정적)	BBB(안정적)

※ 출처: 3사 신용평가사

나이스신용평가			
	회사명	직전등급	현재등급
등급변경	에이유	B-↓	D
	LG디스플레이	AA-	A+
	이마트	AA+	AA
	OCI	A+	A



한국기업평가			
	회사명	직전등급	현재등급
등급변경	에이유	B	D
	LG디스플레이	AA-	A+
	현진소재	B-	CCC↓
	에코마이스터	B-	CCC↓
전망변경	현대로템	A- (안정적)	A- (부정적검토)
	OCI	A+ (부정적)	A+ (부정적검토)

국내 신평사, LGD 등 등급 하향…올 등급조정 3·4월 집중 글로벌 신평사들도 이마트·SK종합화학·KCC 하향 조정 소매유통·생명보험·부동산신탁 주요 업종 전망도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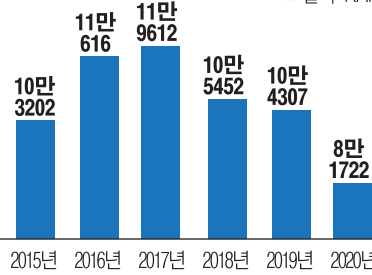
프라코어의 등급 전망을 BBB(긍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한기평은 현대로템과 OCI의 단기모니터링 등급 감시를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했다. 무디스는 △이마트(Baa3→Ba1) △SK이노베이션(Baa1→Baa2) △

SK종합화학(Baa1→Baa2) 등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KCC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변경했다.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강등 쓰나미’를 예고하는 전망은 수치로 나온다. 당장 실적이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

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45곳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0조75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1조5203억 원) 대비 3.55% 감소한 수치다. 기업 실적이 곤두박질치면 나라 경제가 좋을 리 없다. 블룸버그가 42개 국제 경제 연구기관·투자은행(IB)에서 집계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5개 기관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주요 3사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국내 주요 산업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 특히 소매유통·생명보험·부동산신탁 업종

은 3가지 요소(사업환경·실적방향·등급전망)에서 모두 부정적 평가를 했다. 송태준 한기평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실장은 “아웃룩에서 긍정적 전망에서 부정적 전망을 뺀 수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8년 양자간 차이가 줄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양자간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며 “예측지표들이 부정적 방향을 가르키고 있는 데다 대외적 리스크들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 크레딧 관점에서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점점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 무디스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들은 한국 기업의 신용도를 비롯해 여러 산업에 걸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에 기반을 둔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생산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향후 수개월간 내수 경기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완성차 5사 연도별 2월 내수 판매량



완성차 5사 올 2월 내수 판매량

(단위: 대) ※ 출처: 각 사

	2020년 2월	증감률
현대차	3만9290	-26.4%
기아차	2만8681	-13.7%
한국지엠	4978	-3.8%
르노삼성	3673	-25.4%
쌍용차	5100	-32.7%
합계	8만1722	-21.6%

완성차 판매 작년보다 21% 줄어

2월 내수 8만1722대 …10년 만에 8만대 선으로 후퇴
쌍용차 32.7% 줄어… 현대차·르노삼정도 20%대 급감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계의 내수 판매가 우려대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발생한 생산 차질과 내수 침체가 영향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2일 차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사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총 8만1722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21.6% 감소한 수치다. 5사의 2월 내수 판매 합계가 8만 대 선으로 내려간 건 최근 10년 새 처음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3만9290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26.4%나 줄었다. 해외 판매도 10.2% 감소해 23만5754대에 머물렀다. 북미와 유럽 시장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위축되며 전체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과 판매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판매가 줄었다”며 “위기 상황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판매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도 2월에 13.7% 줄어든 2만8681대를 내수 시장에 팔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산량이 줄어 계약대수만큼 출고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이달 특근으로 지난달 발생한 생산 차질분을 최대한 빨리 복구할 계획이다. 가장 많이 팔린 차는 K5(4349대)로 3개월 연속 기아차 월 판매량 1위를 유지했다. 해외 판매는 3.2% 감소한 15

만9163대를 기록했다. 역시 중국 시장의 소비 위축이 주된 원인이었다. 한국지엠(GM)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작았다. 지난달 한국지엠은 내수 시장에서 4978대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쉐보레 스파크가 2000대 넘게 팔리며 내수 판매를 이끌었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전기차 볼트EV의 판매도 큰 폭으로 늘었다. 수출은 16% 줄었다. 르노삼성의 2월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 줄어든 3673대에 머물렀다. 수출은 전년 대비 50.2% 감소한 3384대를 기록했다. 수출을 포함한 전체 판매는 39.8% 감소한 7057대에 그쳤다. 쌍용차는 내림세가 더 가팔랐다. 이 회사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5100대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32.7%나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 공급 차질과 7일간의 생산 중단이 내수 판매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완성차 수출은 전년 대비 7.3% 늘어 2041대를 기록했다. 유럽에서 코란도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이 영향을 줬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계약에서 출고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내수 침체의 결과가 이달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2018년 한국가스공사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선(금상) 한 수상자의 작품입니다.

이 새싹은
나중에 울창한 숲을
만들거립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가스공사

마스크 구입 ‘하늘의 별 따기’… 판매처 지정도 논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생산 물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고 있지만, 마스크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농협, 우체국, 약국 등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 매일 500만 장 규모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일 차인 2일까지 준비한 물량이 일찍 소진돼 미처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들

농협·우체국·약국에 매일 500만 장 공급했지만 물량 부족
가격·판매 방식 제각각… 대통령 격노에 장관들 현장점검
“편의점·대형마트서 판매하거나 주민센터서 직접 나눠줘야”

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불러 마스크 공급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질타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적 판매처마다 다른 마스크 가격과 판매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체국

은 장당 800원으로 1인당 5매씩 판매하고 있지만, 농협은 830원에서 2050원까지 판매가격이 다양하고 1인당 3매에서 5매까지 판매하는 등 지역마다 다르다. 어느 곳은 번호표를 주는 등 체계적으로 판매하지만, 어느 곳은 판매시간인 오후 2시 이전에 매진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적 판매처끼리 물량 확보를 위해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공적 판매처마다 의무 공급량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혼란 그 자체였다. 27일부터 공적 판매가 시작됐지만, 물량이 부족해 마스크 수급이 어렵다는 지적에 부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과했다. 28일에 판매하는 곳이 없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과했다. 이날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탁상행정을 한 결과다. 뒤늦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3일 오후 마스크 생산현장을 점검기로 했다. 앞서 김현준 국무정장도 2일 충북 음성에 있는 마스크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공적 판매처 지정도 논란이다. 정부는 편의점도 공적 판매처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들도 공적 판매처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공

적 판매처에서 긴 줄을 서게 하지 말고 각 주민센터에서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부산 기장군·연제구, 태백시, 강릉시, 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마스크를 유·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여당도 정부에 마스크 대책을 요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코로나19대책위·최고위 연석회의에서 “마스크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의원이 “마스크 문제에 대한 건은 수급 문제 해결 못지않게 정부가 무상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코로나 추경’ 6.2조+ α 메르스 넘는 ‘슈퍼예산’

당정 “이번 주 국무회의 상정”
中企·소상공인 4兆 긴급수혈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출예산 6조2000억 원을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 주 중반경에 오늘의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체 규모를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예산이) 6조2000억 원이었는데 그때 세출 예산을 넘는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세입 경정을 포함해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도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추경 편성 내용으로는 우선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신영보증자금·기술보증자금 특례 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일명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양육 부모 236만 명 대상 아동양육 쿠폰 지급 △근로 노인 보수 30% 상품권 수령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폭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정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당정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회장이 손목에 찬 '박근혜 시계'. 뉴시스

이만희 코로나19 음성 판정받아… “정부에 인적·물적 협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죄

▶1면서 계속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선 “집안에 일이 일어났는데 막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다.

교회도 문을 닫아 놔고 사람도 오가지 못하고 있다. 사람도 없다”며 “이렇게 다 막아놔는데 (일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 같은 확산 금지에 대해 정부도 일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안 하겠느냐”고 말했다.

기자회견 분위기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경찰이 회견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으나, 주변에서 신천지 피해자들이 확산기로 “사기꾼아”라고 외쳤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선 신천지 측이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거나, 질문을 거부하기도 했다. “스스로 영생불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총회장은 “그게 뭘 소린데”라고 되물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신천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질문만 받겠다”며 답을 차단했다.

이 총회장은 세 가지 질문에만 답변을 하고 기자회견 20분여 만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자리를 떠났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코로나19 사태의 모든 책임을 신천지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은 대통령과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 이후의 부실·늑장 대응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체포’, ‘신천지 해체’를 주장하며 코로나 확산 책임을 신천지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신천지와는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신천지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많은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 원내대표는 “정확하게 누가 무슨 말로 신천지를 비호했으며, 정부의 방역활동이 무슨 방해로 받았는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며 “신천지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부족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못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늦은 ‘중증환자’ 중점 관리… “신천지 전수조사 때 했어야”

자가격리 중 잇단 사망자 발생에 치료 체계 변경

중증도 4단계 분류, 경증환자 모니터링·1인 격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체계를 중증환자 중심으로 대폭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입원 병상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배정해 관리하고, 경증환자는 모니터링과 ‘생활치료센터’에 1인 격리에 들어간다.

이는 병실과 의료진 부족, 중증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미 병실을 잡지 못해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보다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6명이다. 특히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는 노인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날 사망한 77세 여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대기 중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자가격리 중이던 74세 남성이, 28일에는 70세 여성과 86세 여성이 모두 자가격리 중에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자가격리 상태의 확진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이날부터 환자 중증도를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구시는 환자 중증도를 4단계로 분류해 지역의 경증환자는 우선 대구 동구 혁신도시 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치료한

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환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는 경증환자까지 입원해 치료하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며 “중증질환자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해 사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증환자에게도 관찰과 격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의 대처가 조금만 빨리 이뤄졌다면 병상 부족이 부른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의료진은 꾸준히 중증도에 따른 치료책을 주문해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이 증상의 정도, 기저질환 여부, 거주 환경 등의 기준을 고려해 재택치료와 입원 대상을 선별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며 “앞서 확진

자가 급증하기 전인 신천지대구교회 전수조사나 폐렴환자 조사에 앞서 이 같은 대책을 펼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경증환자가 지내게 될 ‘생활치료센터’를 위한 의료진 보강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백재중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격리 공간은 확진자를 수용하는 것이어서 의료진을 보강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에 생활치료센터와 의료진 보충을 강하게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공공·대기업 연수원 등 최대한 3000실 이상 확보를 지원해 달라”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인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조기에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코로나 버거운데 경제·안보까지… 고민 깊어진 文대통령

‘마스크 대란’에 민심 동요… 추경 삭감 놓고 대립 예고
“보건 분야 공동협력 제안” 다음날 북한은 발사체 도발

접촉산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종식은커녕 악화일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충격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경제, 여기에 북한이 발사체 도발까지 보태면서 문 대통령은 세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우선 '마스크 대란'으로 대변되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됐다. 공적 마스크 공급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칫 '무능한 정부'라는 정치 공세가 먹힐을 위해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 입국금지 논란으로 촉발된 청와대 국민청원 탄핵동의가 120만 건을 넘긴 상황에서 벗어선 마스크 수급 차질은 문 대통령에 대한 악재로 작용하는 중이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 대비 9.3% 감소하는 등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어 경제 상황은 문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하필 지난달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된다. 예정됐던 투자를 집행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주문한 뒤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실상 경제현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산업현장에서는 생산 차질을 넘어 산업계 전반이 '코로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중이다. 자동차 업계가 신차를 내놓고도 제대로 홍보를 못 하는가 하면, 채용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채용 공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울스톱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계의 소비위축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가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만큼 살아날 것으로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추경 카드를 꺼내며



국군간호사관학교 방문

기업 피해 최소화과 함께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 또한 이런 이유다.

하지만 추경의 효과는 둘째 치고 문대

통령의 바람대로 제때 추경이 작동할지조차 예단하기 어렵다. 야당이 추경 세부 항목 중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추경 편성에 찬성하면서도 방역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긴급 예산 외에 선심성 예산은 포함
대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
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진통
이 있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북한의 도발이 재개된 안보 상황도 문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합동참모 본부는 2일 “오늘 낮 12시 37분께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발사체의 비행 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35km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특히 발사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 분야 협력을 제안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과도 보건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며 남북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일단 2일 오후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북측에 요구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민주당 '비례대표 연합정당' 급물살

시민단체 등에 창당 제안서 받아
미래한국당 '비례 싹쓸이' 대응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여권에서 '비례대표 연합정당'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원외 소수정당,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까지 아우르는 정당을 만들어 범(凡)보수 진영의 비례대표 싸움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주권자전국회의의 등 시민단체로부터 '미려한 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서를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비례대표 후보 개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것과 비교해 기류가 바뀐 모습이 다.

그간 민주당은 비례대표용 정당 구성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 미래통합당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자니 스스로 통과시킨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다고 이대로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총선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2월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응답률 5.1%)에게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민주당이 35%, 미래한국당이 30%의 득표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 이 결과를 새 선거법에 적용해 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하는 반면 미래한국당은 상당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연합정당 구성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카드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게 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기 쉬운 것과 달리 외곽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다만 정의당과 민생당 등 진보진영 내
소수정당에서는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원·달러 환율, 20원 급락한 1193.7원

美 금리인하 기대감 반영
3년 2개월 만에 최대 낙폭

2일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 강세)하며 1200원 선 아래로 내려왔다. 낙폭은 3년에 만에 최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금융 시장을 위협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0원 내린 달러당 119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 폭은 2017년 1월 5일(20.1원 하락)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컸다.

환율은 8.7원 내린 1205.0원으로 출발한 뒤 하락 폭을 키워나가며 결국 20.0원

까지 내려갔다.

한울은 지난달 21일(1209.20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급등해 1200원대에 진입한 이후 전 거래일까지 6거래일 연속 1200원대에 머물렀다.

이날 환율 급락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둔화 우려로 세계 각국의 부양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내놓은 긴급 성명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파월 의장은 연준 홈페이지에 올린 긴급 성명에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증시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언급으로 해석됐다.

노승길 기자 noga81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

공제금 압류 금지

중장기 목돈 마련

연 복리 이자 지급

마음 폭놓고 오래오래~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씬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부동산업대업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기준금리 인하 도미노

중앙銀 총재들 속속 ‘구원투수 등판’

파월 이어 구로다 BOJ 총재
이례적 긴급 성명에 시장 진정
“주요국 4일 동시 금리 내릴 것
중국·홍콩 등도 동참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세계 경제와 시장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급 충격파를 보내면서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구원투수로 전면 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이어 2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시장의 코로나19 패닉을 진정시키고자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구로다 총재는 이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근거로 “적절한 금융시장 조정과 자산 매입 구현을 통해 유통한 자금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 확보를 꾀할 것”이라는 내용의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은행 총재가 담화를 발표한 것은 20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에서 ‘탈퇴’로 결정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본 것이다.

또 일본은행은 이날 오전 금융기관으로 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일본 국채를 매입해 5000억 엔(약 5조5400억 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특별 공개시장 조작을 약 4년 만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한때 미국 달러당 107엔대 초반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구로다 총재의 긴급 담화 이후 108엔대로 하락했다. 도쿄증시도 오

세계 중앙은행의 ‘코로나19’ 대응

※ 출처: 블룸버그

신중국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러시아 등 전 세계 약 20개 신중국 중앙은행, 올 들어 금리 인하
중국 인민은행	· 2월 중순 정책자금 금리인 MLF 금리 0.1%포인트 인하 · 2월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0.1%포인트 인하 · 류궈창 인민은행 부총재, 2월 22일 기준금리 자체도 인하할 가능성 강조
미국 연준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2월 28일 긴급 성명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것 · 연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관측 급부상 · 3월 FOMC 이전에 금리 인하 전망도
일본은행(BOJ)	·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3월 2일 이례적 성명 → 적절한 금융시장 조정과 자산매입 구현으로 유통한 자금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 확보에 힘쓸 것
유럽중앙은행(ECB)	· 라가르드 총재 “코로나19 매우 신중하게 모니터링” · 3월 12일 통화정책회의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 발표 예정 · 이탈리아발 코로나19 유럽 확산이 통화정책 최대 변수로 등장

름세로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8일 긴급 성명에서 “경제를 지원하고자 필요하다면 대응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시장에 조기 금리 인하 신호를 줬다. 이에 3% 넘게 떨어지던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2%가량 낙폭을 줄였다.

앞서 태국, 터키,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20개 신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이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연준 대응팀에 있었던 빌 넬슨 은행정책연구소(BP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오전(미국 동부시간 기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동시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인민은행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07년과 2008년 주요국 중앙은행의 공동 행동이 수요일에 맞춰 단행된 점을 전망의 근

거로 제시했다. 인하 폭은 최소 50bp(1bp=0.01%포인트)이고 75bp로 봤다.

같은 날 골드만삭스도 “연준이 이달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2분기 추가로 내려 상반기에 총 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염병 발발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정책결정자들은 현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ECB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 대책에 나설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CB는 1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발표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일본선 ‘화장지 대란’까지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서 1일 지팡이를 짚 할머니가 텅 빈 화장지 선반 옆을 지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수십 개국으로 확산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화장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마스크는 물론 화장지 사재기 현상이 심각하다. 2일 오후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62명(크루즈 포함), 사망 12명이다.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원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전세계 ‘마스크 대란’…美도 日도 “사재기 자제를”

의료·방역인력 마스크 부족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가 ‘마스크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이란·이탈리아 등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유일한 예방책으로 여겨지는 마스크의 수요가 치솟은 탓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스단(PHSCC) 운영 책임자인 제롬 애덤스 단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마스크를 그만 사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아픈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필요 이상으로 대량 구매해 집에 쌓아두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갑작스럽게 치솟은 수요로 인해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아바

존닷컴이나 아베이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는 품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방역 인력들이 쓸 마스크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마스크와 함께 화장지까지 사재기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해 일본으로의 원재료 수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짜뉴스 탓이다. 보전당국은 “화장지 원료는 펄프이고, 마스크는 부직포”라며 사재기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yun@



피트 부티지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부티지지는 1일 경선을 포기했다. 내슈빌/AP뉴시스

‘초반 돌풍’ 부티지지 중도하차 ‘슈퍼 화요일’ 세 노장 격돌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에서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전격 사퇴했다. 경선 최대 승부처인 ‘슈퍼 화요일’(3월 3일)을 앞두고 초반 돌풍의 주인공인 부티지지가 이탈하면서 민주당 경선 열기는 다소 식을 것으로 보인다.

부티지지는 네바다주 코커스(당원대회)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의 연이은 부진에 경선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부티지지는 자신을 버니 샌더스나 조 바이든 등 70대 높은 정치인과 차별되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하고 뉴햄프셔주에서는 샌더스 상원의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초반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백인 이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결국 경선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부티지지는 네바다주에서 3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4위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민주당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흑인 지지율이 2%에 불과했다. 사우스벤드 시장 시절인 2012년 흑인 경찰서장을 해고했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마이클 블룸버그

**부티지지, 잇단 부진에 사퇴
샌더스 vs 바이든 양강 구도
블룸버그도 본격 경선 돌입**

던 것이 족쇄로 작용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당시 부티지지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다른 경찰관들의 전화 통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로 사우스벤드 첫 흑인 경찰서장을 해임했고, 해고된 경찰서장은 부티지지를 인종차별로 고발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치러진 민주당 4차 경선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는 초반에 부진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압승했다. 2연승을 달린 샌더스의 독주를 저지하고 첫 승리를 챙기면서 ‘샌더스 대 바이든’의 구도로 되돌려놓은 것이다. 14개 주가 한꺼번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의 등판도 예고돼 있어 세 노장의 더욱 치열한 경선전이 예상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코로나·유가하락 여파…걸프 증시 ‘쑥대밭’

사우디 3.71% 하락…쿠웨이트 11% 폭락 ‘사상 최대’

OPEC 추가 감산 효과 의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원유시장 침체가 특히 심각하다. 이 여파로 산유국이 몰린 걸프 지역 증시는 1일(현지시간) 쑥대밭이 됐다. 이번 주 석유수출국가구(OPEC)와 비OPEC 산유국의 모임인 OPEC플러스(+)가 감산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에 나서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CNN에 따르면 걸프 지역 최대이자 세계 10대 주식시장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증시(타다울)는 1일 전 거래일 대비 3.71% 하락해 지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증시의 DFM지수는 4.49%, 아부다비증시 ADX지수는 3.62% 각각 급락했다. 바레인 증시는 3.37%, 오

만은 1.20%, 카타르는 0.61% 각각 하락했다. 쿠웨이트 증시는 11%나 폭락해 하루 낙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걸프 지역 증시가 이날 일제히 추락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월 28일에 전일 대비 5% 폭락한 배럴당 44.7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주에 16% 이상 하락해 주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 19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에 OPEC+는 5~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회동에서 추가 감산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 코로나19에 따른 유가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담당 장관, 주요 석유회사 대표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김서영 기자 0jung2@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

[2주간의 잠시 멈춤 실천수칙]

하나,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둘,
나는 전화,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셋,
나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 위생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2.29.) 및 대한의사협회(2.28.) 대국민 권고사항 반영

증상 의심 시, 병원 방문 전 문의 ☎ **관할 보건소 / 1339 / 120**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P2P 전담조직 강화… 법제화 前 사각지대 점검

건전성 관리 칼 빼든 금감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온라인금융투자 연계법(이하 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 등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P2P 대출의 성장세 속에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자, 지금까지 여신금융감독사국에서 담당 하던 P2P 업체 감사와 제재에 관한 권한을 일체 핀테크혁신실로 위임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혁신 사례로 극찬한 P2P 업체 '팝펀딩'마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P2P 업체들의 잇따른 원금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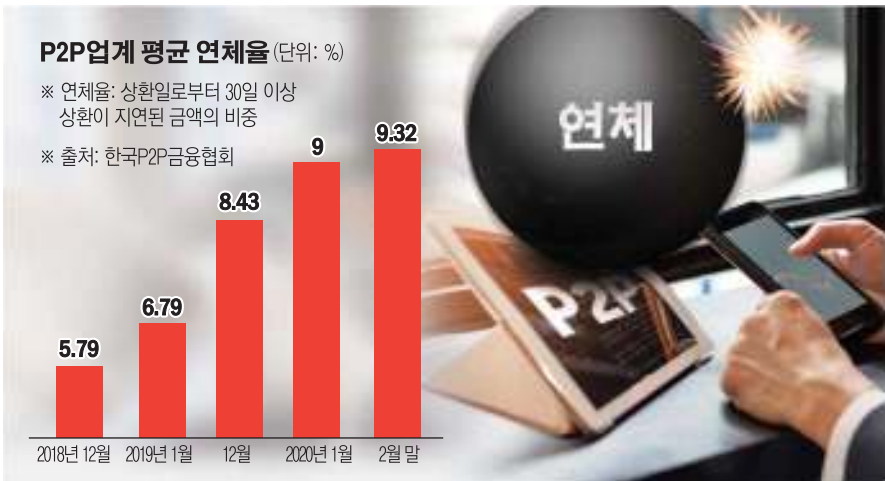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조직개편을 통해 여신금융감독사국에 속해 있던 대부업 3팀을 없애고, 해당 팀의 업무를 핀테크 혁신실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신금융감독사국에서 담당 하던 P2P 업체 감사 및 제재 업무는 핀테크

여신금융감독사국 대부업 3팀 해체 핀테크혁신실로 감사 권한 위임 원금 손실·연체 민원 본격 관리

크 혁신실이 전담한다. 금감원은 이미 해당 조직 개편안을 바탕으로 올해 초 '2020년 연간 감사 계획 및 일정' 수립을 완료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 혁신실로 감사 권한이 넘어오기 전에 진행됐던 검사들은 여신금융감독사국에서 마무리지를 것이고, 이달 이후부터 시작되는 모든 검사는 핀테크 혁신실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P2P 업체 감사와 관련한 조직 개편에 적극적인 이유는 8월 시행되는 P2P금융법과 무관하지 않다. 윤 원장은 P2P금융법 시행을 발판 삼아 핀테크 혁신



실이 P2P 업체 관리·감독에 집중하게 만들어,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는 원금 손실과 연체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P2P 업체는 정체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 보니 금

감원이 특정 업체를 검사 후 부실이나 사기 정황을 적발해도, 관련 금융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P2P금융법이 시행되면 금감원은 정확한 법률에 근거해 P2P 업체들의 대출 실태를 관리하고 제재를 가하게 된다.

P2P금융법은 P2P 업체들이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 등의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있는 업체들은 등록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등록 후 초기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금감원이 업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일각에서는 P2P금융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이 시행되는 8월 전까지는 P2P 업체들이 대부업법을 적용받다가, 8월 이후부터는 P2P 금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업체들은 1년 동안 두 가지 법에 따라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금융법은 P2P 업체들의 등록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어서 8월에 법이 시행되더라도 등록을 내년으로 미루면 내년부터 해당 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코로나 피해 지원 머리 맞댄 하나금융 김정태(가운데) 하나금융 회장이 지성규 하나은행장(왼쪽에서 첫 번째), 장경호 하나카드 사장 등 관계사 CEO와 함께 2일 서울 명동사옥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지주

예비 banker 울리는 코로나... 채용 일정 ‘올스톱’

농협, 필기 합격자 1차 면접 연기 카뱅, 영입·면접 금지 조치 전문직군 수시모집 중단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0여 명에 육박하는 등 악화되면서 은행권 채용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8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지만 1차 면접 일정에 대해서는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통상 면접은 합격 발표한 주에 이뤄지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정 보류된 것이다.

농협은행은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험생 여러분의 안전을 고려해 면접 전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면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필기 합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당초 지난달 9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필기시험 전형도 지난달 23일로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코로나19는 금융권 채용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2020년 상반기 공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채용 일정이 4월에 시작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분위기면 채용 일정이 예년보다 밀리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4월부터 채용 관련 보도자료가 나가고 5월부터 7월까지 채용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계획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채용을 검토 중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세부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2월 28일부터 상반기 채용 일정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아직 공고도 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은행들이 전문직군을 채용하는 수시채용도 변화가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각 부서가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인사담당 부서가 받아 채용 절차를 실시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부서에서의 인력 요청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수시 채용 인력에 대한 면접 진행이 어려운 탓에 잡혀 있던 면접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코로나19 예방조치에 '영입·면접 금지' 조치를 포함해 실시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TK 대출만기, 비대면 자동 연장 추진

금융위-5대 금융지주 간담회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와 경북지역 대출 만기를 비대면으로 자동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2일 신한·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은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사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대출 만기연장, 3조2000억 원의 특별대출 신규 공급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해 감사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선 금융사 대표가 직접 발 벗고 나서달라"고 말했다.

특히, 대표가 직접 매일 지역별로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현장을 독려할 것을 각 지주 회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직원이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따뜻한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타깝게 피해를 본 기업과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의료진처럼 하나금융그룹도 피해를 본 개인·기업·지역을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역밀착형 금융지원을 최우선 조치하고, 식자재 유통정체·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적시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금융사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허용을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긴급 현안이 아닌 이상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를 자제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확대 등 정책금융 기능 강화도 지원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웰컴저축銀, 코로나 피해 성금 1억 쾌척

웰컴저축은행은 2일 코로나19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와 피해자를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금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와 경북의 지자체에 5000만 원씩 나눠 전달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부족하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개인 방역에 취약한 만큼 회사는

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웰컴저축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고객에게 최대 3개월간 원리금 유예와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차주에게는 문자 등으로 지원 내용을 별도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근로자(직계존

비속 포함)다.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원리금 유예와 이자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대구·경북 지역 차주와 PC방, 숙박업, 음식점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문자와 전화로 지원 내용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대웅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객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웰컴저축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한 금융거래와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국민銀 ‘리브엠’ LTE 무제한 요금제 50% 할인

BTS 유심 출시 기념 행사

KB국민은행 Liiv M(이하 리브엠)이 2일 방탄소년단(BTS) 유심(USIM) 출시와 함께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월 4만4000원의 LTE 무제한 요금제(리브엠 LTE 11GB+)를 월 2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요금제를 제공한다. LTE 무

제한 요금제는 매달 11GB 소진 시 매일 2GB, 일 데이터까지 소진 시에는 3Mbps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또 방탄소년단 유심은 3월부터 리브엠 가입자 10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리브엠이 제공하는 유심은 KB모바일 인증서를 탑재할 수 있어 휴대폰 교체 시에도 인증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없다. 인증서 해킹이 불가능해 금융 편의성



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서비스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전자·반도체 ‘C의 공포’…실적 전망 줄줄이 하향

삼성 1분기 영업이익 1900억 감소
SK하이닉스, 한달새 19% 하락
삼성SDI는 실적 전망치 반토막
코로나 확산에 ‘수요 감소’ 우려
미국도 애플·MS 등 전망 낮춰

국내 전자, 반도체 기업의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 기업의 생산 차질 우려가 주된 원인이다.

2일 애플앤가이드 증권사 실적 컨센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4791억 원으로 1개월 전보다 19.3%(1145억 원) 하락했다. 반면, 매출액 전망치는 6조7722억 원으로 한 달 전 전망치보다 4.1%(2655억 원)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서버를 중심으로 한 고정 거래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중순 이후 하락하던 현물가격도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 둔화하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수요 둔화와 공급 불안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면서 영업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3000억 원을 겨우 넘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6조6079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934억 원 감소했다. LG전자의 전망치는 8321억 원으로 1개월 전보다 587억 원 줄었다. 상저하의 패턴을 보이는 가전업계는 비수기 영향으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소폭 감소했다.

전자 부품계열사들도 1분기 동반 실적 하락이 우려된다. LG디스플레이의 영업손실 폭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1분기 영업손실액은 한 달 전 예상한 3043억 원에서 3754억 원으로 적자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SDI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533억 원에서 748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 달 전보다 무려 51.2% 급락한 규모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된 건 코로나19 여파가 중국을 넘어 국내에서 확산하면서다. 그동안 기업들은 중국 생산라인 방위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공장 셧다운 우려가 현실이 됐다.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할 경우 올해 1분기 내국인의 국내 소비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0.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최대 0.7%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국내에 이어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더 큰 악재다. 공포감이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품의 가격 상승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성 저하, 비용 증가, 수요 둔화 심화 가능성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는행(IB)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성장률이 ‘제로(0)’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 하노이에 동남아 최대 R&D센터 착공

2600억 투자해 2022년 완공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 THT 신도시 지구에서 연구개발(R&D) 센터 건설 공사를 본격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2억2000만 달러(약 2600억 원)를 투자해 2022년 말 완공 예정인 삼성전자 베트남 R&D센터는 전체 면적 7만9000여㎡, 지상 16층, 지하 3층 규모로 건설된다.

삼성전자의 R&D센터 가운데 동남아시

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모바일 및 네트워크 분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과 검증에 필요한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췄다. 또 옥상 정원, 피트니스, 식당 등을 갖추게 된다.

건물이 완성되면 현재 하노이 시내 PVI 타워 8개 층을 임대해 운영 중인 삼성베트남모바일연구소(SVMC)의 연구 인력이 2200명에서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08년 베트남 북부 박닌성

에 첫 휴대폰 공장을 설립한 후 타이완우옌성과 호찌민시에 모바일, TV, 가전제품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해왔다.

지금까지 베트남 당국에 승인받은 투자 규모는 95억 달러(약 11조3800억 원)나 된다. 삼성그룹 전체로는 170억 달러(약 20조3800억 원)를 웃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R&D센터 착공식을 개최기로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소했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 QLED 8K 300대 사전판매

삼성전자는 2020년형 QLED 8K TV 공식 출시에 앞서 3일부터 16일까지 사전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2020년형 QLED 8K 2개 모델(85·75형)을 300대 한정해 판매한다.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라이프스타일 TV ‘더 세리프(The Serif)’ 55형 모델을 무상 증정하며, 5년 무상 보증, 10년 번인 보증, 프리미엄 설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Q 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출고가 기준 85형(85QT950)이 1940만 원, 75형(75QT950)은 1390만 원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아시아나 전 직원, 3월 급여 3분의 1 반납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금지 및 입국제한 조치 국가가 81개국에 달하자 아시아나항공이 2주 만에 강화된 자구안을 내놨다.

2일 아시아나에 따르면, 전 직원 대상으로 10일 이상 무급휴직과 33% 급여 반납

을 조기 실시하고, 3월 급여 차감을 일괄 실시기로 했다.

한창수(사진)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기존 40%의 급여 반납 조치에서 전액으로 변경했다. 또 임원들도 기존 30%에서

50%, 조직장은 기존 20%에서 30%로 반납 급여 금액을 각각 높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9일 전년도 어닝 쇼크와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대표이사 등 전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사장과 임원들은 각각 급여의 40%, 30%를 반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SK실트론, 듀폰 SiC 웨이퍼 품었다

5400억 규모 사업 인수 마무리
전력반도체 두자릿수 성장 기대
전기차·5G 네트워크 활용 각광

SK실트론은 미국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Silicon Carbide Wafer·이하 SiC 웨이퍼) 사업부 인수를 지난달 29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지난해 9월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바 있다.

인수금액은 4억5000만 달러(약 5400억 원)다. 최근 정부와 사회의 소재기술 자립 요구에 부응하는 과감한 글로벌 기술 투자로 평가된다.

SK실트론은 인수 이후에도 관련분야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iC 웨이퍼의 생산량 증대와 미국 내 추가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최근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데다 통신 업체의 초고속 5G(5세대 이동통신)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반도체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SiC 웨이퍼는 고경도, 내전압, 내열 특성이 있어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전기차, 5G 네트워크 등에 사용되는 전력반도체용 웨이퍼로 각광받고 있다.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영역이다.

SK실트론은 이번 인수를 통해 듀폰이 보유한 연구개발(R&D) 및 생산 역량과 기존 주력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고성장 영역 진출을 통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실트론은 경북 구미시에 본사를 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1조5429억 원으로 글로벌 5대 웨이퍼 제조 기업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판매량의 약 17%(300mm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 판매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대만 등 총 5곳에 해외법인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01년 설립된 미국법인인 인텔, 마이크론 등 8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실리콘 웨이퍼를 판매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중, 3600억 규모 ‘셔틀탱커’ 올해 첫 수주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8일 아시아 지역 선주와 수에즈막스급 셔틀탱커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첫 삼성중공업의 수주 건으로, 계약 규모는 3611억 원이다. 이들 선박은 2022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 저장지까지 실어나르는 역할을 하는 선박이다.

삼성중공업은 1995년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셔틀탱커 건조를 시작했으며,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45%(143척 중 64척)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선박의 운영비용(OPEX)을 더욱 줄이고 환경규제 추세에 맞춘 친환경 솔루션



삼성중공업이 올해 인도한 친환경 셔틀탱커.

적용으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를 84억 달러로 지난해 실적(71억 달러)보다 18% 높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급조한 토양, 결실 못 맺어”…‘3자연합’ 비판

대한항공 창립 51주년 기념사
직원은 씨앗, 경영진 땅에 비유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
조현아 연합 정당성 부족 강조

“이런저런 재료들을 섞어 급조한 토양, 기업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자리에 심겨진 씨앗은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일 대한항공 창립 51주년을 맞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좋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주축으로 한 ‘3자 연합’을 ‘급조한 토양’으로 비유하며 이들의 행보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1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 수송에 투입된 전세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이달 말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주주인 사모펀드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의 끊임없는 공세와 이들의 경영권 개입 의지가 정당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조 회장은 “우리 임직원의 가치 있고 소중한 씨앗은 마땅히 좋은 곳에 뿌

려져야 한다”면서 “우리가 직접 대한항공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100년을 위한 발걸음을 주문했다.

또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성숙한 땅, 씨앗을 소중히 품어주고 충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일상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심기에 합당하고 적합한 토양”이라고 강조했다. 급조한 토양과 달리 ‘마땅히 좋은 곳’, ‘오랜 비바람을 견뎌낸 성숙한 땅’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현 경영진에 비유했다.

현 직원들에 대해서는 ‘값진 씨앗’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들이 대한항공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좋은 씨앗이라고 믿는다”며 “국가의 부름에 자신의 안위조차 뒤로하는 중국 우한행 전세기에 자원해 탑승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또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러 조 회장은 창립 후 5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한항공이 영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업의 초석을 다진 창업주 회장님, 글로벌 항공사로의 성장을 이끈 선대 회장님, 함께 헌신했던 수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고객, 주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직원에 대한 헌사도 잊지 않았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오늘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임직원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의연하게 임무를 수행해주시는 여러분께 그 어떤 감사의 표현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과정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 담긴 가치 있는 미래를 보며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어 나아가자”며 끝을 맺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별도의 창립기념식 행사는 하지 않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제주항공, 이스타 545억에 인수

150억 낮춰 주식매매계약 체결
내달 29일까지 전액 납입 예정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당초 예상액보다 150억 원 낮춰 인수한다.

제주항공은 2일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1000주(51.17%)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인수가액은 545억 원으로 당초 알려졌던 695억 원보다 150억 원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장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해 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스타항공 SPA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실사를 진행했지만, 두 차례나 SPA 체결 날짜가 미뤄지면서 인수 포기, 무산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MOU 체결과 동시에 이스타홀딩스에 이행보증금으로 115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동안 이스타항공은 737맥스(MAX) 8 2대 운항 중단과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자본잠식 기준 강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은 오랜 고민 끝에 ‘조금 낮은 가격’이

라는 대안을 내세워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설을 뒤집었다.

양사가 항공시장의 위기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인수합병(M&A)의 성공적 추진이 곧 항공산업 위기 극복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한 것도 한몫했다.

제주항공은 이미 지급한 이행보증금 115억 원을 제외한 차액 약 430억 원은 취득 예정일인 4월 29일에 전액 납입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인수를 통해 양사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원가절감 △노선 활용의 유연성 확보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계획이다.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지난 15년간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가능하게 했고, LCC라는 사업모델을 성공시켰다”면서 “양사의 운영효율 및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도전하자”고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민간 차원에서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며 “항공산업은 관광, 호텔, 자영업 등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지원과 금융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아반떼·쏘나타·코나·싼타페 최대 7% 할인

아반떼 연 1.5% 저리 할부

현대자동차가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아반떼, 쏘나타, 코나, 싼타페 등 주요 인기 차종 약 1만1000대를 최소 2%에서 최대 7%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개소세를 인하여 따라 4개 차종을 이날부터 차종별 한정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각 영업점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차종별 할인율은 정사가 대비 △아반떼

5~7% △쏘나타 3~7% △코나 2~7% △싼타페 4~7%이며, 아반떼는 연 1.5% 저금리 할부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세부 할인 금액과 대상 차종 유무 등의 궁금증은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한시적인 하 정책에 발맞춰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아반떼, 쏘나타, 코나, 싼타페 등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인기 차종들을 준비했으니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자세한 상품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자세히 보면 보장의 차이가 보입니다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갱신형)무배당

암 진단비 감액기간없이 100%보장
(암보장 개시일 90일 이후,
소액암, 유사암 제외)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도
주계약 보장으로 보장범위 확대

2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 개시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본 상품은 2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는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 을 검색해보세요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심의필제 2019-03796호 (2019.12.03) 준법감시인확인필 CS 19-12-10



정부의 ‘착한 임대인’ 독려… 정작 소상공인은 ‘썹썹’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로 건물주 손실 보전
소상공인에겐 저금리대출 확대 등 대출 위주의 지원책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위한 현금성 지원 절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차담회’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분만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지원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에겐 대출을, 건물주에겐 혜택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장관은 2일 서울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내 테크노상가에서 점포 임대료를 10~25%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차담회는 점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 준 임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상권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 장관은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일

부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화로 덕을 본 상인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모으고, 서로 돕는 상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달 2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약 560명의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1만1000여 개 점포의 임대료가 낮아진 것으로 중기부는 추산하고 있다.

박 장관은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 등을 치켜세웠다. 그는 “과거 메르스와 사드 사태 때에도 점포 임대료를 동결해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인들의 이번 조치가 상인들에게 상당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테크노상가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동대문 상권 착한 임대인’ 차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대인 ‘칭찬하기’와 더불어 현금성 지원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

다. 임대료 손실을 세액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의미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임대료를 20~50%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이런 정부 지원의 ‘변질수’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성 지원이 더 필

요한 것은 임대인보다는 소상공인이라는 애기다.

실제로 임대인과는 다르게 소상공인에겐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2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소상공인 지원책 대부분은 대출 위주인 셈이다.

이를 두고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는 감사한 일이지만 오히려 매출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금성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건물주들에게 오히려 더 관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대출 공급을 늘리는 계획 위주”라며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 여력이 낮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매출 하락으로 인한 직접 피해 보상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타다금지법’ 놓고 모빌리티 업계 갈등 증폭

타다의 1심 무죄 판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타다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금지법에 대해 논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타다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만약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다 베이직’은 불법 서비스로 간주된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임을

법사위, 이번 국회 통과 의지 무죄 판결로 처리 가능성 낮아

이재웅 쏘카 대표 “폐기” 호소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7개 업체 “조속한 통과 촉구”

전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아진 상태다. 또 법원 판결로 인해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변경되기 어렵다. 그럴 경우 법원의 판단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인 만큼 타다금지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국내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해 코로나 관련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거나, 본회의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타다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 총선 이후 열릴 수도 있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지만 확률은 매우 낮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금지법을 폐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이 4일 법사위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어려운 감염위기에 또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던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안을 폐기해 줬으면 한다”며 “폐기된다면 타다는 정상적으로 4월 1일

분할 독립해 새로운 유니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 7곳은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며 “타다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 간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타다금지법은 개혁입법이며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인테리어 공사 등 소형 현장에 딱
한일시멘트, 25kg 미장용 레미탈

한일시멘트는 이달부터 무게는 줄이고, 품질은 개선한 ‘25kg 프리미엄 미장용 레미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25kg 프리미엄 미장용 레미탈은 기존 40kg에서 포장 단위를 소량화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 소형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 노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더불어 사용자 안전에도 용이하다. 유럽 등 선진국은 소포장(18~27kg)이 보편화돼 있는 데 반해, 현재 국내 포장용 건설자재는 대부분 40kg으로 출시되고 있다.

또한 무게를 줄이면서 특성 개선을 위한 첨가제 종류 및 함량은 최적화했다. 일반적 미장 시공은 초벌에서 마무리까지 통상 2회 이상 미장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번 제품은 단 한 번의 시공으로도 충분한 물성을 얻을 수 있어 공기 단축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한일시멘트는 이와 관련한 특허(제10-1862594호)도 등록을 완료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신제품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 판촉 및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한 제품을 개발해 건설현장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일시멘트는 지난해에도 건설환경 변화에 맞춰 중간소음을 줄여주는 ‘고강도 바닥용 레미탈 FS150’과 기존 타일시멘트 대비 약 80%의 분진을 저감할 수 있는 ‘타일접착용 모르타르 폴리픽스 1000/2000’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최영희 기자 che@

교육업계 ‘코로나19 대응 학습 프로그램’ 가동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가의 개학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교육업체도 비상이 걸렸다. 각 학급별로 재학생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등 위기 대응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동시에 홈스쿨링 등 비대면 교육방식을 채택하는 등 학습 공백 최소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은 유튜브를 통해 초등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웅진씽크빅은 기업 공식 유튜브 채널 ‘스마트올TV’를 긴급 개설, 유료 디지털 학습 영상을 개학일까지 무상 공유한다. 매일 오전 9시 학년별로 학습해야 할 과목의 개념학습 영상을 업데이트한다. 초등 전 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통합교과뿐만 아니라, 영어, 독서, 고전, 한국사

유료 학습 콘텐츠 무상으로 제공
홈스쿨링·전화관리 비대면 확대
개학 연기 학습공백 최소화 노력

등 특별 학습 콘텐츠도 함께 서비스한다. 유튜브 채널은 물론 웅진스마트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웅진씽크빅은 웅진북클럽 회원이 보유한 학습패드로 독서 및 전 과목 종합 학습 온라인 콘텐츠도 추가, 담당교사 유선 코칭을 연결해 교육 공백이 우려되는 회원의 자가 학습을 도울 예정이다.

영어교육 유선생은 가정 방문 관리를 화상관리 또는 전화관리 방식으로 변경했다. 화상이나 전화로 학습관리가 어려운 회원의 경우 당분간 자기주도학습 위주로

진행한 뒤 추후 빠진 횟수만큼 방문관리를 보충한다. 학원 및 공부방 브랜드인 윤선생영어, 윤선생 IGSE아카데미, 윤선생 우리집영어교실은 회원이 등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매일 학습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데일리홈케어’ 방식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임시 학습 앱을 내려받으면 기존 진도와 동일하게 집에서 영어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윤선생은 전국 1700여 가맹센터 지원도 나선다. 학원 및 공부방 브랜드는 이미 출고 완료된 후원 회원의 교재 및 음원 사용료에 대한 분사 납입금을 면제하고, 납입기한도 유예한다.

홈스쿨링 아이스크림에듀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지역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스크림 홈런’ 1000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초등학생(전 학년) 자녀를 둔



맛별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4일까지 아이스크림 홈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아이스크림 홈런으로 휴교 기간을 포함한 2개월 동안 평상시 학교 진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고, 전화 등을 통해 홈런 담당 선생님의 밀착관리를 받는다. 또한 학부모들은 ‘홈런 좋은 부모 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자녀들의 학습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

이재훈 기자 yes@

‘면역력 강화’ 건기식 시장… 식품·뷰티기업 “우리도”

을 시장 규모 5兆 전망… 감염병 확산에 소비자 수요 커져
농심 ‘라이필 더마 콜라겐’·풀무원녹즙 배달 서비스 진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올해 5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기식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는 데다 제약사뿐 아니라 식품, 뷰티 기업들까지 관련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감염병은 건기식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감염병이 창궐한 시기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예년보다 큰 폭의 성장을 이룬 바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이 앞다퉈 건기식 구매에 나선 덕분이다. 실제로 신종플루 발생 이후 6개월 동안 이전 6개월 대비 홍삼 구매액은 57% 증가했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에도 건기식 구매액이 15%가량 증가했다.

2일 시장조사기관 칸타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전년대비 5~

9% 성장한 4조7000억~4조9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집계한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성장한 4조6000억 원이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유통업체들은 PB(자체상표) 상품의 범위를 건기식까지 확대하고 있고 식품기업들도 건기식 라인업을 속속 강화하고 있다. 뷰티기업들도 다 이어트용 건기식 중심에서 이너뷰티와 비타민 제품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농심은 인체 흡수력을 높인 ‘라이필 더마 콜라겐’을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제품은 알약 형태로 하루 1번 간편하게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피부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은 피부 세포에 가까운 저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흡수력을 높인



농심 ‘라이필 더마 콜라겐’과 바이탈뷰티 ‘녹차에서 온 유산균’.

것이 특징이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은 국내 시판 제품 중 분자량이 가장 작은 173Da(달톤)이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의 주원료인 ‘저분자콜라겐헵타이드NS’는 농심이 자체 개발해 국내 기술로는 최초로 식약처 인증을 획득한 콜라겐 성분이다. 농심은 건강기능식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도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에이플네이처와 손잡고 단백질 식품 시장에 진출한다. 푸르밀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단백질 식품 시장을 겨



냥한 신제품을 개발, 올해 중 출시할 예정이다. 푸르밀은 에이플네이처의 대표 브랜드 ‘칼로바이’와 협업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단백질 우유, 요거트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풀무원녹즙은 건기식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다. 풀무원녹즙의 배송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까지 배달 품목을 확대한 것. 풀무원은 지난해 8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체지방 썩’을 론칭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식물성 EPA 및

DHA 함유 유지(오메가3)와 비타민D, 비타민E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흐를:류’를 출시한 바 있다.

발효홍삼을 앞세워 건기식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아쿠르트도 지난해 8월 발효홍삼 ‘발휘’를 내놴. 발휘는 한국아쿠르트는 50년 유산균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체내 흡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제품은 2013년 발효홍삼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며 누적 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발효홍삼 K’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아모레퍼시픽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는 유기농 녹차 유래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녹차에서 온 유산균’을 출시하며 이너뷰티 이외의 제품까지 라인업을 늘렸다.

대상웰라이프는 클로렐라 제품에 최근 단백질 건기식인 뉴프로틴을 추가했고 동원F&B는 글로벌 건기식 브랜드 GnC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며 건기식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새봄맞이 대청소로
세균·미세먼지 안녕

2일 롯데마트 대전 노은점에서 직원들이 청소용품을 소개하고 있다. 본격적인 청소 시즌인 봄을 맞아 롯데마트 노은점에서는 11일까지 ‘봄맞이 청소용품 대전’ 행사를 열어 3M 청소용품 브랜드 ‘스카치브라이트’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롯데쇼핑

‘매출 부진’ 빅마켓, 유료회원제 포기

6월부터 무료… 상호·인력 유지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이 6월부터 유료회원제를 폐지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스페셜 등 경쟁사의 창고형 할인점이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만큼 유료회원제를 폐지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롯데쇼핑은 6월 1일부터 빅마켓을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일반 매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회원 탈퇴는 가입 점도에서 할 수 있고 연회비는 남은 가입 기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롯데쇼핑 측은 유료회원제 폐지만 달라지는 것이고, 빅마켓이라는 상호와 인력 구조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 측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자 유료회원제를 폐지한다”며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형

태는 유지하고, 빅마켓이란 이름도 그대로 사용한다. 빅마켓 인력 역시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빅마켓 금천점과 영등포점의 경우 도보로 30분 이내에 롯데마트가 자리하고 있지만, 빅마켓은 롯데마트와 달리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특색이 있는 만큼 롯데쇼핑 측은 상권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빅마켓은 대용량 상품, 해외 소싱 상품이 전체 상품의 20~30%를 차지하는 특색 있는 매장으로, 롯데마트의 니즈와 다르다”고 말했다.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은 2012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1호점을 낸 뒤 2014년 킨텍스점 이후로 신규 출점하지 않았다. 현재 빅마켓 매장 수는 5개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빅마켓은 경쟁사와 비교해 매장 수도 적고 유료회원 신규 가입자 수도 갈수록 떨어져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미선 기자 only@

이마트 트레이더스



커피 구독 서비스

T카페 月4980원 아메리카노 매일 한 잔

백화점에 이어 대형마트도 구독경제에 가세한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각각 반찬과 빵 정기 구독 서비스를 내놓는데 이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커피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마트의 대형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T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월(月) 구독권’을 트레이더스 전점(일산 이마트타운 킨텍스점 제외)에서 4월까지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T카페는 트레이더스 내 피자과 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푸드코트다. 킨텍스점을 제외한 트레이더스 전점에 입점했다.

매일 아메리카노 1잔과 교환할 수 있는 커피 구독권은 삼성카드로 결제 시 4980원, 그 외 결제 수단으로 79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독권 구입 시 ‘일자별 아메리카노 교환권’ 31장과 ‘커피+스콘 세트 교환권’인 ‘킹왕짱 쿠폰’ 2장으로 구성돼 있는 쿠폰북을 제공한다.

T카페는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커피+스콘세트를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커피 구독권을 삼성카드로 구매하고 교환권과 쿠폰을 전부 사용할 시 정가 3만5000원으로 최대 85% 저렴하다. 일반카드로 구매해도 최대 77% 할

인된 가격이다. 구독권은 구매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초창기 ‘정기구독’ 서비스는 주로 스타트업계가 신선식품 배송 등에 사용했지만, 최근엔 홈쇼핑과 편의점, 백화점 등도 서비스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대상 제품군도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렌탈형’에서 커피와 생리대, 반찬, 빵 등 일상 제품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온·오프라인 경쟁이 심화하면서 온라인으로 고객이 이동하지 않게 자물쇠를 잠그는 이른바 ‘록인(Lock in)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다. 고객 정보 관리가 용이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문은 롯데가 열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 가정식 반찬 판매업체 ‘라운드키친’과 함께 맞춤형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백화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구독 서비스에 발을 내디뎠다. 김치류와 볶음류, 국류, 조림류로 약 200여 품목이 대상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에만 1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은 올 1월 영등포점 식품관에 위치한 ‘메나쥬리’ 베이커

리와 협업해 빵 정기 구독 서비스를 내놴. 베이커리에서 5만 원을 내면 한 달간 인기 제품 5종 중에 1개를 매일 가져갈 수 있다. 5종의 빵 1개당 가격은 4200~5500원으로, 30일 동안 매일 빵을 구독할 경우 정가의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

홈쇼핑과 편의점 역시 구독경제 사업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5월 TV홈쇼핑 업계 최초로 정기 배송 사업에 나섰고, GS홈쇼핑은 사과와 자두 등 제철 과일과 김치를 정기 배송해주는 ‘달달마켓’으로 뛰어 들었다. GS25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카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능성을 엿본 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유통 공룡들이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는 이유는 고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록인(Lock in) 효과’ 때문이다. 또한 들른 김에 다른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미끼’ 효과도 탁월하다.

이형달 트레이더스 운영담당은 “트레이더스에서 맛있는 커피를 매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커피 구독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30주년 빈폴 ‘팔구공삼일일’ 팝업 첫선

브랜드 리뉴얼 후 젊은층 공략

빈폴 30주년 리뉴얼의 대표 상품 ‘팔구공삼일일(890311)’이 첫 번째 팝업스토어<사진>를 선보인다.

삼성물산패션 부문의 캐주얼 브랜드 ‘빈폴’은 브랜드 리뉴얼 이후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대표 상품 ‘890311’을 론칭했는데 이번엔 첫 번째 팝업스토어를 비이커한남점에 11일까지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빈폴은 지난해 브랜드 30주년을 맞아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만이 보유했던 정서, 문화, 철학 등 한국의 헤리티지를 담은 상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는 물론 글로벌 고객을 잡기 위해 ‘890311’ 라인을 선보였다.

빈폴은 론칭 시기인 1989년 3월 11일을 모티브로 한 ‘890311’ 라인을 한남동에 있는 비이커 매장에 29.7㎡(약 9평) 규모로 오픈했다.

‘890311’은 1960~70년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오얏꽃(자두의 순우리말)을 상징화한 상품을 출시했다. 또 공장, 버스, 택시기사 등 유니폼과 럭비선수들이 입었던 운동복에서 영감을 받아 동시대적인 디



자인과 실용성을 더한 워크웨어 및 스트리트 웨어를 내놴.

빈폴은 럭비 스타일 상품에 오버사이즈 스타일과 다양한 컬러 및 소재를 결합했고, 브랜드 고유의 체크 패턴과 스포츠 감성의 손목과 허리 줄임 원단을 매칭하거나 퀵팅으로 디자인해 신선함을 더했다.

정구호 컨설팅 고문은 “890311 라인은 스포츠와 캐주얼 감성이 세련되게 믹스돼 젊은 세대들이 트렌디하게 코디할 수 있다”며 “팬츠는 배기부터 치노까지 다양하게 출시됐는데 루즈핏의 릴렉스한 느낌으로 상의 코디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패닉장서도 “저점 매수하세요”… 개미 울린 리포트

“지수 반등 대비 ‘매수’로 대응”
SK텔레콤·삼성전자·신한지주 등
증권사 리포트 ‘매수’ 일색
상위 10종목 주가 평균 8.8% ↓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 1월 31일~2월 28일

종목명	증감률	종목명	증감률
삼성전자	-3.90%	아모레퍼시픽	-14.36%
한국전력	-15.98%	포스코	-11.54%
신한지주	-17.50%	삼성SDI	6.88%
SK하이닉스	-5.99%	SK텔레콤	-7.41%
호텔신라	-8.12%	KT&G	-10.94%

※출처: 한국거래소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이 기록적인 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매수’ 일색의 리포트만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 의존도가 높은 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애플앤가이드에 따르면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

6700여 개 중 투자자의견으로 ‘매도’를 제시한 곳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투자자의견 ‘매수(BUY)’를 제시하거나 ‘비중유지(HOLD)’를 추천했다. 그러나 ‘매수’ 권고를 많이 받은 종목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 가장 많은 매수 의견을 받은 종목은 SK텔레콤(21건), 삼성전자(20건)다. 같은 기간 이들 종목의 주가는 각각 7.41%, 3.90% 하락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조정=매수기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등 증권사 20개사가 모두 저점 매수를 권했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19건), 아모레퍼시픽(19건), 신한지주(18건), POSCO(16건), 호텔신라(16건), KT&G(12건) 등의 매수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신한지주(-17.5%), 아모레퍼시픽(-14.36%), KT&G(-10.94%) 등 대부분 종목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들은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종목에 포함된 종목들로 평균 8.8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증권사는 외국인의 대규모 물량 출회로 지수가 하락하던 25일에도 ‘매수’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매도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점진적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주문했다. 또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른 지수 반등을 대비해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리포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종목 대부분은 상승했다. 244억 원어치를 사들인 삼천당제약의 경우 주가가 36.68% 상승했지

만 같은 기간 관련 리포트는 1건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DB손해보험(11건), 셀트리온헬스케어(5건) 등은 증권사의 매수 추천 권고가 적었음에도 각각 1.88%, 13.29% 등 상승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외국인이 연일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를 권하고 있다”며 “개인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면서 반대매매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개인투자자의 리포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증권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코로나19’ 여파 증시 변동성 커져 일평균 거래대금 7.6兆

21개월 만에 ‘최고’

코로나19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유가증권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6000억 원으로 2018년 5월(9조1000억 원)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는 코스피 지수가 2400~2500을 넘어서며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7조 원을 넘나 들었다. 하지만 이후 박스권에 갇히며 크게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주가 지수가 2000선을 오가면서 거래대금도 4조 원 중반에서 5조 원 초반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 들어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5조1000억 원을 기록했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월에 6조4000억 원으로 늘었고 2월에는 7조6000억 원까지 올라섰다.

코스닥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월 코스닥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6조6000억 원으로 2018년 1월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1월에는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증시를 주도하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2월 들어서는 정치인 테마주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들쭉이며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하루 증시에서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일중 변동성은 코스피의 경우 2월에 1.52로 1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큰 최근 상황에 맞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지만 반등 시점은 멀지 않고 속도도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바닥을 기다리지 말고 사모을 필요가 있고 코스피 21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주총대란 우려… 상장사 ‘전자투표’ 도입 급증

“코로나 확산 방지·의결수 확보”
지난달 28일 기준 134개사 동참
전자투표 이용 1000곳 넘길 듯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전자투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공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279개사다. 이 중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사는 134개사로 전체의 48.02%를 차지했다. 현 추세라면 이번 주총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상장사는 1000곳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2202개사) 중 정기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한 곳은 564개사로 전체의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총
전자투표 이용 현황

연도	총 상장사	전자투표 이용	이용률
2018년	2142개사	489개사	22.8%
2019년	2202개사	564개사	25.6%
2020년	279개사	134개사	48.0%

※2020년 2월 28일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한 상장사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한국예탁결제원

25.61%에 그쳤다. 2018년 주총서는 22.82%에 불과했다.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보다 편하게 주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 관리업사는 지난해까지 한국예탁결제원 홀로 맡아왔지만 올해부터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주총에서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인 ‘케이이보트’(K-evote)를 이용하는 상장사는 94개사로

전체의 70.14%다. 이어 삼성증권의 ‘온라인주총장’이 17.91%(24개사), 미래에셋대우의 ‘플랫폼V’가 11.19%(15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상장사 전자투표 도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주총에 한해 전자투표 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주주총회 특별지원반’을 운영하며 모바일 알림톡 활용 등 주주에 대한 전자투표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대형사들도 감염병 예방과 주주권리 강화 차원에서 전자투표 도입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함께 올해 처음 전자투표를 도입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등 9개 상장 계열사가 올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상장계열사 7개 모두 전자투표를 채택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

기업용 ERP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사업부 분할 나선 상장사

대부분 실적 부진 사업부 떼내
'선택과 집중' 경영 효율성 제고
녹십자엠에스는 분할 후 매각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장사 물적 분할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사업 구조 조정 차원에서 부진한 사업부를 떼어내 분할하는 방식이 많았다. 특히 사업부 매각을 전제로 분할을 진행한 사례도 눈에 띄게 늘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업 분할을 결정한 상장사는 코스피, 코스닥시장 모두 합쳐 14개다. 이달 들어서만 서호전기, 녹십자엠에스, 가온미디어, 대덕전자, 아이에스동서, 현대제철, 드림텍, 테라젠이텍스, 동부건설, 엔케이 등이 사업부 물적분할을 공시했다.

14개 기업 중 두 기업을 제외한 12개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을 택했다. 물적분할은 분리·신설된 주식을 모회사가 100% 소유하게 되는 기업분할 방식이다. 기존 회사가 분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주주권과 경영권 등 지배권은 계속 유지된다.

드림텍은 지난달 28일 자동차 전장부품 및 광학센서(AES) 사업부를 분할해 '드림텍오토모티브(가칭)'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AES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17% 정도로, 분할법인 설립 시 총 자산은 611억 원, 부채는 110억 원 규모다.

업계에선 드림텍의 이 같은 행보가 스마트폰 부품(IMC), 지문인식모듈(BHC) 사업 부문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지난해 12월 카메라 모듈 제조사인 나무가를 인수하면서 해당 사업 부문 강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같은 선택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드림텍의 작년 영업이익은 308억 원대로 전년보다 27.2% 감소하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최종 고객사 판매 부진으로 인한 전장사업부 영업손실이 꼽혔다.

비슷한 시기 단조부문을 분할해 '현대아이에프씨(가칭)'를 설립하기로 한 현대제철도 일정 부분 재무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4월 설립 예정인 현대아이에프씨의 총 자본은 2740억 원, 부채는 2478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따지면 분할 완료 시 모회사의 부채비율은 87.8%에서 86.3%로 1.5%p 낮아지게 된다.

사업부 매각을 전제로 분할을 결정한 상장사도 있었다. 지난달 10일 혈액백 사업 부문 분할 결정을 공시한 녹십자엠에스가 대표적인 경우다. 녹십자엠에스는 혈액백, 혈액투석액, 진단시약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분할 결정을 밝히면서 "분할 완료 후 신설회사 전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우리 기자 we1228@

日 자회사 적자 늘며 부채비율 급증

상장사 재무 분석

심텍

코스닥 상장사 심텍이 지난해 적자 전환한 데 이어 부채비율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돌파를 위해 심텍은 최근 부채 상환 등을 위해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심텍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1조 원이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179억 원과 393억 원으로 모두 적자 전환했다.

영업손실의 경우 일본 자회사 이스턴(Eastern)이 460억 원의 손실을 낸 탓이 크다. 이스턴은 2018년 15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들어 크게 늘었다. 이스턴을 제외하면 280억 원의 이익을 낸 셈이지만 전체 연결기준에서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실적 부진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부채비율이다. 지난해 심텍의 부채비율은

심텍 재무손익 현황

(단위: 원, %) ※ 2019년은 잠정치

종목명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8116억	1조75억	1조1억
영업이익	338억	308억	-179억
당기순이익	161억	23억	-393억
부채비율	239.07	279.06	439.73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

이스턴 작년 460억 손실 영향
280억 영업익, 179억 적자전환
부채비율 440% 전년比 160%p ↑

439.73%로, 전년 대비 16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심텍은 지난해 자회사 심텍글로벌이 스마트폰이낸상제사차로부터 1회차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바 있다. 또 심텍 역시 신한금융투자로부터 1회차 사모채를 발행했다. 이들 각각 약 300억 원 규모이며 CB는 비유동부채에, 올 6월 만기인 사모채는 유동부채에 계상됐다.

이 때문에 심텍의 총 부채는 68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6% 증가했다. 반면 실

적 부진으로 줄어든 잉여금 탓에 총자본(1556억 원)은 27.49% 감소했고, 그 결과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적자와 늘어난 부채 속에 심텍은 최근 92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주배정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673억 원은 채무상환에, 251억 원은 시설자금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심텍이 조달했던 사모채 상환도 여기 포함된다.

다만 상환 목적이 큰 이번 유증이 3자배정 방식이 아닌,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인 터라 일반 주주들에게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유증은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20%, 구주주 80% 순으로 진행된다. 주가는 유증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하루에만 16% 이상 하락하는 등 최근 3거래일간 25% 이상 떨어졌다.

심텍의 최대주주는 현재 심텍홀딩스로, 지분 44.88%를 보유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유증에 대해 "심텍홀딩스의 지분을 제외한 주식을 1% 미만의 소규모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경영권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EMW, 최대주주 변경으로 거래재개 기대감

거래소 경영 개선 요구 달성
감사의견 '적정'만 남아

EMW의 거래재개 기대감이 높아졌다.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경영 개선 방안을 대부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의견만 적정을 받으면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EMW는 류병훈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 전량(지분율 18.34%)을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인수자는 이앤에스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로, 445만 주를 89억 원에 인수했다. 나머지 4.34%는 이 회사가 지정한 자(LD CRES LLC)가 인수했다. 잔금 납입은 지난달 27일 완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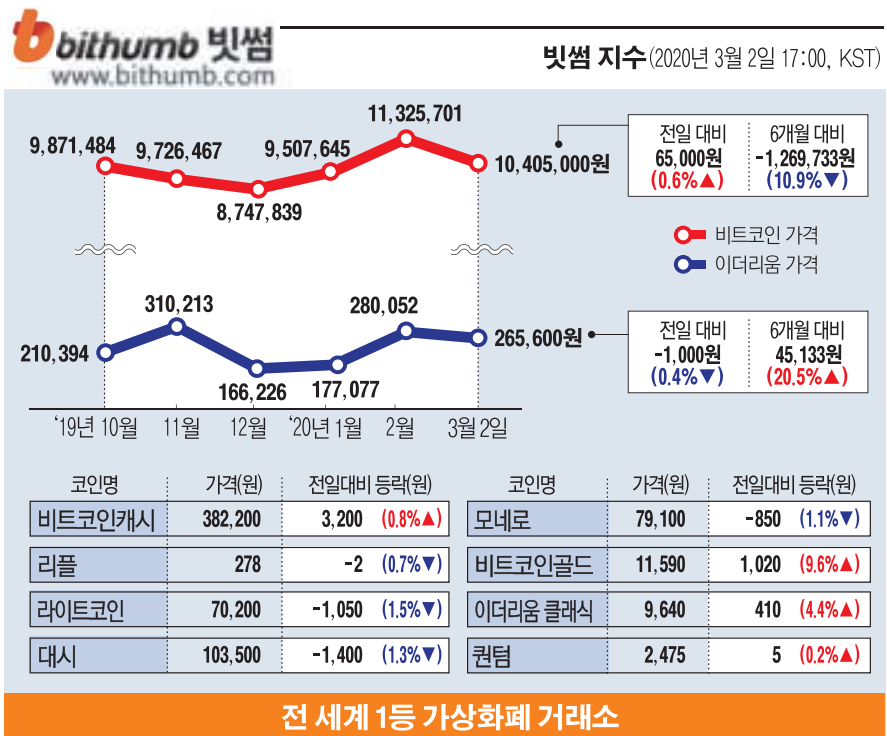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소액주주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거래 정지 당시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 투명성 개선을 완료한 셈이기 때문이다. EMW는 전 최대주주인 류 전 대표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되며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류 전 대표가 추가 혐의로 기소되며 감사의견도 거절당했다. 당시 거래소는 EMW 측에 경영 투명성 개선 대책과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EMW는 기소된 전 대표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액은 6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15.3% 늘고, 당기순이익도 38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만은 쉽지 않았다. 현 경영진은 대부분 임원들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업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EMW의 거래재개 관련 정량적 문제는 '감사의견'만 남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앞서 감사의견이 거절된 주요 이유는 류 전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횡령 금액 확정이 어렵다는 점과 추가 기소 가능성 등이었다.

박기영 기자 pgy@



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 17-04981호(2019.11.15~2020.11.14)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75-158호(2019.11.15~2020.11.14)

KYOBEO 교보증권

수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전 학원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증권, 롯데백화점,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자인, 무설플렉시스 등 OI, GS25, 세련상미리점 10% 청구할인
SKT, KT, LG+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리타일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매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제자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중점을 두는 영업 활동이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객관적보통성에 따라 해금보통공시가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과 경우 MTS 해금 시 0.114%의 수수료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로또 단지’ 잇단 분양 ‘코로나 공포’ 넘을까

‘반값’ 과천 지식타운 첫 분양
과천제이드자이 시세보다 6억 싸
마곡 9단지도 4억가량 낮아
르엘 신반포는 7억 이상 차이
새 아파트 선호 ‘청약광풍’ 예고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이달 ‘로또 단지’가 잇따라 분양시장에 등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에 분양시장이 뒤숭숭해진 와중에도 일부 새 아파트 청약엔 수만명이 몰리거나 청약가점 84점을 찍은 만점자가 등장하고 있다.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코로나19 감염증 공포를 뚫고 청약광풍을 이어갈 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마수결이 단지인 ‘과천 제이드 자이’가 3일 1순위 청약 모집에 나선다.

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분양아파트로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 입주자 모집

3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분양 예정 단지

지역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	건설사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9단지	59~84	1529	SH공사·한신공영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	56~100	280	롯데건설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과천제이드자이	49~59	647	LH·GS건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84~175	1205	현대건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쌍용더플레티넘오목천역	39~84	930	쌍용건설

공고를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가점이 아닌 저축총액(납입 인정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납입 인정 회차는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1순위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경쟁에선 청약통장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선 강서구 마곡지구 9단지가 공공분양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 단지는 과천제이드 자이처럼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서 해당지역(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에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경쟁에서 납입 인정액이 많은 청약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점 역시 같다. 전매는 두 단지는 모두 10년동안 제한된다.

업계는 이들 두 단지가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워진 시장 상황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선호도가 워낙 높은 거주지역인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로또 단지이기 때문이다.

실제 과천 제이드 자이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195만 원으로 전용면적 49㎡가 4억3320만~4억555만 원, 59㎡는 5억

1610만~5억4230만 원 선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가장 가까운 원문동 ‘래미안 슈르’ 전용 59㎡가 이달 12억27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시세보다 6억 원 이상 저렴하다. 이 단지가 로또 단지로 불리는 이유다.

마곡9단지도 전용 59㎡의 평균 분양가는 5억885만 원, 최고 분양가는 5억2515만 원이다. 전용 84㎡는 분양가가 평균 6억7532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난 2016년 입주한 인근 마곡 엘베리8단지 전용 59㎡의 이달 최고 실거래액(9억5000만 원) 대비 4억 원 이상 낮다.

강남권에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를 재건축하는 ‘르엘 신반포’가 분양 대기 중이다. 분양가는 롯데건설이 지난해 11월 단지 바로 옆에서 공급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 아파트(3.3㎡당 평균 4891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전용 84㎡형은 분양가가 약 16억 원 선으로 2018년 입주한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매매가 28억 원 선)와 비교하면 12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이가 가능한 셈이다.

고가 아파트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부담이 커졌지만 분양 완판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지난 1월 청약을 진행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옛 개포주공4단지)는 평균 65대 1, 최고 283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에도 자금력과 청약가점을 모두 갖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최고 당첨 가점은 79점(만점은 84점)에 달했다.

마곡9단지와 과천 제이드 자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 중이다. 르엘 신반포 역시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을 검토 중이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서울 및 수도권에선 모두 1만2702가구가 분양된다. ‘핫’한 분양시장으로 떠오른 수원시 권선구의 ‘쌍용더플레티넘 오목천역’을 비롯해 규제 무풍지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부평에서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와 ‘힐스테이트 부평’ 등이 분양 채비에 들어간다. 이들 대부분의 단지가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부동산시장도 ‘전자투표’ 도입해야”

한남3구역 조합원, 재건축·재개발 총회 일정 차질에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위한 설명회나,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등 당장 추진해야 할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현장 참석 위주의 의사 결정 방식 대신에 온라인 중심의 전자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높아지자 25개 지지구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구청장 권한으로 대규모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줄줄이 총회 등 집회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은평구 갈현동 갈현1구역 조합은 8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미뤘으며, 응암2구역(8일)과 대조1구역(19일) 조합도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아직 고민 중인 곳도 있다. 한남3구역은 이달 정기총회와 다음달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상황 추이를 보며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알린 상태다.

이처럼 정비사업 총회 일정이 잇달아 밀리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주로 현장 참석이나 서면결의 방식 등 오프라인으로 의사결정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데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급 상황시 빠른 대처에 나설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3월호 발매

COVER STORY

하우징의 품격을 짓다

- PART1. 1인 가구 vs 다세대 가구 - 따로 또 같이, 가구별 하우징 플랫폼
PART2. 시니어 하우스를 가다 - 품격을 담은 노후 보금자리
PART3. 집에 대한 고민들 - 늘어나는 세균부담 '넘겨라'
PART4. 노후 하우스 함께 짓다 - '나이 들면 한집에서우리끼리 살아볼까?'
PART5.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테리어 - 클래식한 분위기로 공간을 꾸미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제 삶의 인생은 아내와 함께”
이규 김득 유승환



원만한 남편이 좋아하는 건 안 하는 남편보다
“한지 같은 여자”
국인 가수 김성희와 실과 사랑



물론 것을 일리고
경의롭게 살다
박연재 변호사



Living & Home
모던하고 심플하게,
홈 오피스
및 아이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어떤지 뒤편 도전하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종종 샘솟는다. 따뜻한 봄을 맞아 책장의 묵은 먼지도 털고 책상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져보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우드나 베이지 톤, 또는 블랙 포인트 아이템으로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게 홈 오피스를 꾸며보면 어떨까?



시니어 맞춤

홈마이드 사생활을
안과 성인병 예방하는
브로콜리 활용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정식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원장
신용국 투자로
자금리 넘는다

생생 부동산 현장

주택은 관습인데,
상기는 글썽...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붐지역에
향한 지역이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다. 마곡지구는
지금까지 드러난 호재가 최근 또 다른 호재가 겹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마곡지구가 품은 부동산
호재와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가입 기간 길수록 보증료 더 많이 내... 구조적 모순”

국토부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 추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바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가입 기간뿐 아니라 리스크와 집주인의 부채 등을 고려해 보증료를 정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사고 위험도가 낮은 임대계약에는 현행보다 보증료를 낮추고, 위험도가 높은 임대계약엔 보증료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HUG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주택 유형과 보증 기간을 반영해 연간 보증금 납부액을 결정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다른 주택은 0.154%다. 이 때문에 보증 가입자들은 전

세금 반환보증에 일찍 가입할수록 보증료만 많이 내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세 잔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은 단기 전세금 반환보증 계약 가입은 512건으로 전년 같은 달(114건)보다 4배 넘게 늘었다. 반면 전세 잔여기간이 2년 넘게 남은 장기 보증 계약 가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가입에 필요한 정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보증료를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인상액 일부는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이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수업일수로 총 15일 휴업... 방학 줄어든다

신학기 개학 23일로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간 추가로 연기됐다. 대학교 개강 이후 집합수업 대신 재택수업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애초 한 차례 미룬 9일에서 14일 이후인 23일로 추가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학기 개학은 총 3주일이 미뤄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관련 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이달 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다음 주까지가 코로나19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학기 개학이 총 3주간 연기되면서 학교 수업일수로는 15일 휴업하게 된다. 각급 학교는 15일 만큼 여름방학·겨울방학을 줄일 예정이다.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면 법정

코로나19 사태 중대 고비 판단

초등생 긴급 돌봄서비스 시행 원격 강의 등 대학 재택수업 권고

수업일수를 10% 감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와 협력해 휴업 기간 중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학원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각 학교는 이번 주에 담임 배정 및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와 EBS 동영상 등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둘째 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해 예습과제를 내고 학습 피드백도 제공한다.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대화방 등을 활용한다.

교육부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중학생을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를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한다. 더불어 학원에는 휴원을 재차 권고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10일간의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5일에 대해 50만 원까지 자녀돌봄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교 개강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원격 수업, 과제물 할

용 수업 등 재택 수업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와 대학이 개학(개강)을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한명 한명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회삿돈 생활비로 받은 아내 대법 “사해행위” 파기환송

회삿돈 1300억 원을 횡령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BB코리아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BB코리아의 재무이사인 B 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17억 원가량을 횡령해 2017년 2월 홍콩으로 도피했다. 도피 직전 B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내 A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8만7000달러(약 1억 원)를 송금했다.

회사는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2008년 A 씨에게 보낸 3000만 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

1300억 횡령한 재무이사 도피 전 가족에 1억 송금 “재산 빼돌리기 위한 증여”

장했다.

1심은 “증거들만으로는 A 씨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송금된 8만7000달러가 (이전에 주기적으로 받은) 생활비와 교육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해외도피가 임박한 시점에 원고의 자금을 빼돌려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함이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항공사 대표 수사

노동청 신고 이유 고충위 안 열어 개최 약속했지만 근로계약 해지 법조계 “현행법 위반 행위” 지적

서울의 한 신생 소형항공사의 대표이사 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은 최근 직원 성추행 혐의로 A 사 대표를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끝난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A 사의 본사 소재지

를 관할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관됐다. 강서경찰서는 이번 주 중 피해자 B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 씨는 2018년 입사 이후 지난달 말 기간만료로 퇴사를 통보받기 이전까지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식 자리와 회사 내, 중국 출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달 초 회사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A 사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와 함께 성추행 혐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다.

남부지청은 1차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다.

B 씨는 “회사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부산지방항공청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 차례 면담만 이뤄졌을 뿐 결국 고충위는 열리지 않은 채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는 이 같은 A 사의 대처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김보라 변호사는 “노동부 신고와 상관없이 회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다른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것이 (조사하지 않는)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는 A 사에 대표와의 연락을 요청하는 전화·이메일을 수차례 보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회사 측은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실도 모르고, 강서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성희롱 관련 건은 외부로 알리지 않는 것이 회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및 신고인 보호를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종용 기자 deep@

홍인석 기자 mystic@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츠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매력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톡톡생각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알고 다르다면,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알고 실천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알고,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사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과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9쪽 | 지음 / 2019년 / 국민은행 / 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버린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함은 물론, 깊이 있는 읽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정훈 지음 / 2019년 / 예문당 / 15,800원

〈서울시장〉

박원순 “코로나 이번주 고비… ‘잠시 멈춤’ 동참해 달라”

‘4대 대응 전략’ 제안

“3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더욱 심각한 통제 불능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방역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주가 코로나19가 전국에 폭발적으로 퍼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의 중대기에서 ‘잠시 멈춤’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며 “잠복기가 2주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는 개개인이 완벽한 자가격리를 하면 감염은 완벽히 차단할 수 있지만, 강력한 통제 방식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정부와 타 지방자

재택·유연근무 확대 시행 요청

돌봄 서비스 등 복지 공백 최소화

소상공 대상 신규 자금 지원 검토

‘자발적 격리’ 시민 캠페인 추진

치단체, 기업, 시민들에게 ‘잠시 멈춤 4대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잠시 멈춤에 대한 사회 전 분야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삼성, LG 등 상당수 대기업들은 재택·유연근무 등의 확대 실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다”며 “재택·유연근무 등의 확대 실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전 준비가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지원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끌어내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잠시 멈춤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잠시 멈춤에도 사각지대가 없는 정책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유지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실직 등 위기 가구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와 입원·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지

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과 병행해 시설물 안전 및 방역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조체계 구축 시행도 제안했다. 그는 “‘잠시 멈춤’을 서울만 시행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이 동시에 시행해야 극대화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 드리며 시행 시기와 범위, 방법 등에 대해 함께 모여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과 지역사회 캠페인과 ‘자발적 격리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코로나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잠시 멈춤 시민운동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나라와 이웃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의 마음이야말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회적 면역체계의 근원”이라며 “모두가 담대한 마음가짐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차분히 지켜내자, 서로에게 백신이 되자”고 강조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첫 시범 보급

외벽·창호에 태양광패널 설치

10억 투입… 보조금 80% 지원

친환경·도시미관 개선 등 효과

서울시가 외벽, 창호, 지붕, 커튼월 등 태양광패널 설치에 어려웠던 건물 외부 곳곳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설(BIPV)’을 지자체 최초로 보급한다.

서울시는 10억 원을 투입해 민간 건물에 BIPV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8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2022년까지 태양광을 1GW(1000M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에서 신기술형, 디자인형, 일반형 등 모집 분야를 다양화했다. 태양광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 등을 연구·분석해 BIPV를 서울시 주요 태양광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IPV는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해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 효과도 있다.

태양광 기술과 건축 기술이 융복합하는 첨단 산업으로 독일, 미국 등 태양전지 선진국에서도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한 단계다. 서울시는 BIPV의 민간 보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관련 산업 성장과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참여자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참여자를 선정하고 4월 사업에 들어가 연내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BIPV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전문가와 태양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BIPV는 미세먼지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요금 절감 등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인 BIPV를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관악구 ‘낙성벤처밸리’ 창업 메카로…

창업공간 3개소 운영 본격화

컨설팅·투자유치 기회 제공

서울 관악구가 서울대 후문 낙성대 일대를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낙성벤처밸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을 본격 운영한다.

2일 관악구에 따르면 낙성벤처밸리의 거점 역할을 할 창업공간은 낙성벤처창업센터 본점(관악구 낙성대로 2), R&D센터점(관악구 낙성대로 38),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낙성대역) 3개소다.

낙성벤처창업센터 본점은 옛 보훈

회관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688㎡ 규모로 신축했다. R&D센터점은 165㎡ 규모로 리모델링해 새 단장을 마쳤다. R&D센터점은 독립형 사무공간 및 회의실로 구성돼 있고, 2개 기업 20명이 입주한다.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은 낙성대역 사내에 112.42㎡ 규모로 네트워크 공간, 회의실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 촬영에 활용되는 디지털 미디어실로 구성된다.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기본 창업교육 및 컨설팅 이외에 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한 크리에이터 육성 등 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똑똑,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
www.childfund.or.kr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코로나 쇼크'가 앞당길 차세대 기술

카셰어링, 바이러스 옮길라...비접촉식 차량 제어 성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차량공유, 이른바 '카셰어링'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러스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인해 옮겨진다. 코로나19의 경우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거나, 한 차에 동승했던 이들이 비말접촉 등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대중교통을 통해 감염이 퍼지거나,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단 행사가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했던 공유 자동차를, 별다른 방역 없이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도 생긴다. 시간제 차량공유 서비스 탓에 '감염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출발점이다.

◇카셰어링 발목 잡을 신종 바이러스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카셰어링 신종론'을 제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 참석한 정 부회장은 "카셰어링의 경우 반드시 '위생'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차량공유' 시대를 앞두고 "위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며 맹목적인 긍정 여론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우리가 그 비즈니스(카셰어링)를 하게 되면 정말 위생적으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만약 공기전파(에어로졸)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게 되면 미래차 사업 가운데 하나인 카셰어링은 확산 때 개체로 지목될 수 있다. 카셰어링은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렌터카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여 시간이 짧고 비용도 합리적이다.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한 대의 자동차를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줄지어 타다 보니 요즘처럼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 이용이 꺼려진다. 나아가 수령과 반납 장소가 자유롭다는 장점도 이런 시국에서는 단점으로 돌변한다. 렌터카처럼 반납 이후 청소 및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자칫 자동차 공유를 넘어 '바이러스'까지 공유할 수도 있다.

◇자동차에 비접촉 생체 인식 기술 확대 = 결국 다른 차를 타더라도 최대한 생체 접촉을 줄이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한다.

예컨대 자율주행 시스템이 발달하면 운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면서 운전자와 자동차의 비접촉(터치리스·touchless) 제어 장치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스위치가 손가락을 스치기만 해도 작동되고 음성인식 제어를 통해 편의장비와 정보센터 등에 접속할 수 있다. 사진은 현대차 8세대 쏘나타에 장착된 카카오 음성 제어 기능. 음성 명령을 시작하면 센터 모니터에 카카오 캐릭터가 등장한다. 사진제공 현대차·카카오아이

현대차 정의선의 선견지명

2018년 CES서 전염병 언급

"카셰어링 성패 위생문제에 달려"

운전대 없는 완전 자율주행 등 접촉 줄이는 AI·생체센서 부각

전자의 신체가 자동차와 접촉하는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제기한 자율주행 단계는 총 5단계다. 현재 국산 양산차들이 보유한 기술은 레벨 2~2.5 수준. 올해는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 레벨3 시험운행도 준비 중이다.

레벨 5단계 자율주행차는 애초부터 차에 스티어링 휠(운전대)이 달리지 않는다.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가 알아서 이동한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존재할 뿐, 목적지를 설정한 이후에는 사람의 의도가 자동차의 움직임에 관여할 수 없어서 '운전자'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 다양한 조작기기와 접촉하며 살아야 한다.

◇차에 타기 전에는 모션으로 운전자 구분 = 이런 이유로 비접촉(터치리스·touchless) 제어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커넥티드카 분야 가운데 하나로 상당 부분 상용화돼 있다.

먼저 도어를 여는 방식부터 달라지고 있다. 이제 자동차에 근접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여는 동작까지 차가 알아서 해준다.

리모컨 접근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생체 정보를 알아보고 차 문을 열어주는 기술도 나왔다. 사람마다 고유한 신체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생체인식 기술은 지문이다. 효율성이 높지만 이 역시 차와 사람의 접촉이 필요하다. 안면과 홍채 인식도 효과가 크지만 도어 잠금 장치를 해제할 때마다 센서에 얼굴을 들이밀어야 한다는 게 걸림돌이다.

최근에는 운전자의 신체 특징과 패턴을

내 몸짓·역양까지 읽는 차

운전자 걸음걸이·홍채 인식

차 문 열어주는 기술 상용화 에어컨·오디오도 음성으로 주인 목소리에만 반응 가능

분석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운전자의 걸음걸이까지 인식하는 방식이다. 차 주변에 달린 여러 대의 카메라가 접근하는 운전자의 키와 신체 특징 등을 파악한다. 무엇보다 걸음걸이의 특징을 구분한다. 정확도가 꽤 높아 후천적으로 걸음걸이가 달라진 '일란성 쌍둥이'까지 구별하고 있다. 이 역시 조만간 이중 보안장치 형태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차에 탄 뒤에는 손 대지 않고 음성으로 명령 = 차에 올라탄 이후에는 모션과 음성으로 다양한 비접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모션 인식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불필요한 동작 탓에 사고 위험성

을 키울 수 있다. 결국 안전하고 빠른 제어를 위해 음성인식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오디오 음량과 송풍구 바람 세기 등은 이미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단어 위주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제법 복잡한 구문과 문장까지 이해한다. 다만 외부 소음이 크거나 자동차의 음성 안내 등이 겹치는 등 일부 환경에서 사용자의 말을 못 알아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음성 명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 예컨대 음성을 잘못 인식해 오작동이 일어나더라도 하면 자칫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양산된 음성 명령 시스템들이 차의 움직임보다 편의 장비의 작동에 국한된 것도 이런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인식 장치 스스로 운전자의 발음과 억양을 학습하는 장치도 개발 중이다.

단순하게 음성을 인식해 편의 장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설정된 특정 운전자의 목소리만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양산을 앞두고 있다. 차가 운전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셈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비접촉 제어는 크게 모션제어와 음성명령으로 나뉜다. 차 안에서는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 음성명령이 주로 쓰인다. 운전자의 목소리와 말투를 학습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현대차

"따뜻하게 해줘"...말하자 시트열선 가동

지난해 8세대 쏘나타부터 직관적 명령뿐만 아니라 대화형 요구 정확히 파악

자동차 음성 명령 서비스가 본격화한 것은 2010년대 초부터다. IT기술이 발달한 미국 빅3가 음성을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기술을 양산차에 사용하면서 음성 명령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봄 첫선을 보인 8세대 쏘나타부터 음성인식 대화형 비서 서

스가 본격화했다.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는 카카오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를 활용한 서비스다. 현대차와 카카오는 2017년 초부터 스마트 스피커인 카카오미니의 다양한 기능을 차 안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카카오와 공동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등장한 첫 모델은 기아차 K9이지만 대화형 비서 서비스는 쏘나타가 처음이다.

신형 쏘나타에 적용되는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는 뉴스 브리핑을 시작으로 △날씨

△영화 정보 △주가 정보 △일반상식 △스포츠 경기 결과 △실시간 검색어 순위 △외국어 번역 △환율 정보 △오늘의 운세 △자연어 길 안내 등을 제공한다.

시행 초기인 만큼 서비스 카테고리는 안전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항목을 골랐다. 앞으로 지속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차량 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차량용 비서 서비스를 처음 탑재한 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블루링크 사용자에게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등장한 기아차 K5는 더 똑똑해졌다. 예컨대 "에어컨 켜줘" "앞 좌석 창문 열 어줘"와 같은 직관적인 명령뿐 아니라 "시

원하게 해줘" "따뜻하게 해줘"와 같이 사람에게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경우에도 운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다.

나아가 그에 맞춰 공조뿐만 아니라 창문, 운전대 열선, 시트 열선 및 통풍, 뒷유리 열선 등을 모두 제어할 수 있다.

추교용 현대차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 상무는 "신형 쏘나타에 '카카오 i'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가 탑재됨으로써 고객에게 차와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넘어 감성적 만족을 선사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ICT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커넥티드카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260호(2019년1월22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KB 증권

“노키아 공장 떠난 빈 자리, SK가 채워졌으면”

SK이노베이션 헝가리공장 노라 폴리 HR 담당자

몇 년 전 노키아 철수 아쉬움, SK ‘행복’ 경영철학에 기대감
아직은 낮은 인지도 걸림돌, 폐북 홍보·고교 방문 통해 알려

“SK이노베이션 헝가리 공장이 노키아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헝가리 법인(SKBH)에서 인재 채용과 관리를 맡은 노라 폴리(Nora Pali·사진) HR 담당자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전문 보도채널 ‘스키노 뉴스’를 통해 “몇 년 전 노키아가 헝가리 북서부 코마름에스테르곰 주에 위치한 코마름 공장을 철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가족 친화적이고 구성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는 업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K가 그룹 차원에서 구성원의 ‘행복’을 강조하는 만큼, 이런 SKBH의 경영철학에 공감하는 인재들이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헝가리 코마름 공장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부문에서 유럽에 처음으로 지은 생산기지다. 2017년 11월 8500억 원을 투자했다. 연 7.5기가와트시(GWh) 규모로 올해 1월부터 배터리 생산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9400억 원가량을 투자해 9 GWh 규모의 제2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다. 두 공장의 생산능력을 합치면 16.5 GWh다. 전기차 약 33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공장 확대와 더불어 SKBH는 인재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SKBH는 주로 구직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한 수시채용을 활용하고 있다.

폴리는 “인재를 뽑는 기준은 크게 직무 적합성과 인성”이라며 “HR 담당자는 구직자의 히스토리(이력)와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근무파트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용을 하는 데 낮은 실업률과 인지도는 걸림돌이다. 헝가리 실업률은 현재 2%가 되지 않는 수준이고 코마름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에 그친다.

그는 낮은 인지도에 대해 “SKBH처럼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일”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SKBH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해결될 부분”이라고 자신했다.

폴리는 SKBH를 알리기 위해 여러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채용 플랫폼과 옥외 광고판은 물론,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에 SKBH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올린다”며 “특히 SKBH에는 페이스북 팀이 있어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등 교육 일선 현장에도 직접 방문해 SKBH를 알리고 있다. 당장 입사지원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회사 소개와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폴리는 SKBH의 장점으로 “코마름은 헝가리의 큰 도시인 부다페스트와 죄르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인 강점이 있다”며 “슬로바키아 국경과 가까워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SKBH에서 근무할 수 있고, SKBH는 지역별로 통근 버스를 운행해 근무 편의를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사진 스키노뉴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취임

대한건설협회는 김상수 한림건설 대표가 제28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2월 29일까지 4년간이다. 앞서 김 신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서 제28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 건설기술교육원 이사장도 겸하게 된다.

경남 김해 출신인 김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제21~22대 대의원, 제23~24대 경남도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적정공사비 보장, 각종 건설 규제 철폐 등 건설산업 환경 개선과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등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제약바이오協 AI센터장 김화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신임 센터장에 김화중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빅데이터와 산업을 융합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 센터장은 강원대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EMR) 구축과 최적화를 총괄했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를 맡고 있다. AI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는 비상근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정책자문을 해왔으며, 데이터사이언스개론, 빅데이터 비즈니스 등 저서를 냈다.

유혜은 기자 euna@

KCC,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19 성금 10억 기부

KCC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KCC가 기부한 5억 원을 비롯해 정상영 KCC 명예회장, 정몽진 KCC

회장이 각각 4억 원과 1억 원씩 사재를 출연했다.

KCC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기업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방탄소년단, 4연속 ‘빌보드 200’ 1위

앨범 4개 1년 9개월 새 정상에…“비틀스 이후 최단 기간”

방탄소년단(사진)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네 번째로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는 1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맵 오브 더 솔: 7(MAP OF THE SOUL: 7)’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네 번째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2018년 9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 2019년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에 이어 ‘MAP OF THE SOUL: 7’까지 약 1년 9개월간 ‘빌보드 200’ 1위를 한 네 장의 앨범을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은 약 1년 5개월(1966년 7월~1968년 1월)을 기록한 비틀스 이후, 그룹으로는 가장 빠르게 4장의



앨범 1위를 달성했다”고 강조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전작 세 장을 포함한 ‘MAP OF THE SOUL: 7’이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10번째 비(非) 영어권 앨범이 됐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은 발매 첫 주 미국에서만 42만2000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4만7000장이 CD 등 물리적 앨범 판매량이며,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는 2만6000장,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는 4만8000장으로 집계됐다.

홍인석 기자 mystic@

한국타이어, 저소득층 예방에 5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 5억 원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 기탁은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셀트리온, 대구경북 등 10억 전달

셀트리온그룹은 코로나19 감염증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 인천, 충북지역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극복 노력 지원을 위해 총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이번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에 4억 원, 경북지역에 2억 원, 셀트리온그룹 주요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과 충북지역에 각각 2억 원 총 10억 원이다. 각 지역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및 구호물품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euna@

부음

양자전기역학 이론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스

양자 전기역학의 기반을 닦은 이론 물리학자이자 과학에 관한 다양한 대중서를 집필한 작가인 프리먼 J. 다이스 박사가 지난달 28일 타계했다. 향년 96세.

영국에서 태어난 다이스는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미국 코넬대학 대학원에 진학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한스 베테 교수 아래서 물리학을 공부했다. 이때 빛이 물질과 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다이스는 학문적 업적을 넘어 우주탐사 분야의 다양한 제안과 과학 대중서 출간으로 더 널리 이름을 알렸다. 55세 때 ‘에로스에서 가이아까지’를 시작으로 ‘과학은 반역이다’, ‘프리먼 다이스, 20세기를 말하다’ 등을 펴냈다. 2000년에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다룬 ‘종교에서의 진보’로 종교활동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템플턴 상을 받기도 했다.

인 4일, 061-852-4445

▲서경화(한국체대 레저스포츠산업학과 교수·전 농구 국가대표) 씨 별세 =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4일 오전, 02-3010-2000

▲이두복 씨 별세, 이종식·구익(크리에이티브마스 대표) 씨 부친상 = 2일, 의정부 연세장례식장 지하2층 국화1호, 발인 4일 오전 6시, 010-7337-2927

▲김중희 씨 별세,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 사장 모친상 = 2일, 강남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02-2019-4000

▲박용욱 씨 별세, 박종훈(사업)·종열(한국은행 주임교수)·영희·복희·선희 씨 부친상, 이용석(사업)·장용호(회사원)·김승현(교사) 씨 장인상, 임애란·이영주 씨 시부상 = 2일, 전남 보성 우리장례식장, 발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민용식 △성과관리정책관 양홍석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보임 △전자정부본부장 오광탁 △글로벌협력본부장 고윤석 ◇팀장 보임 △ICT융합본부 융합기획팀장 이해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심성희 △에너지산업연구본부 본부장 소진영 △연구기획조정실장 이호무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전력정책연구팀 팀장 정연제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기후변화연구팀 팀장 이상준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 팀장 박기현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석유정책연구팀 팀장 정준환 △에너지산업연구본부 가스정책연구팀 팀장 박진호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집단에너지연구팀 팀장 박명덕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수급연구팀 팀장 김성균 △에너지국제협력센터 국제협력연구팀 팀장 정성삼 △에너지국제협력센터 해외정보분석

팀 팀장 김창훈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승진 최희문
◆안랩 ◇상무 승진 △NW개발본부장 노영진 △서비스영업본부장 안병규 △커뮤니케이션실장 인지범 ◇상무보 승진 △EP영업본부장 문상필 △정보전략실장 정진교 △매니지먼트개발실장 한태수

◆휴온스그룹 ◇승진 ◇휴온스 △상무 양효승 △이사 연성흥 ◇휴메딕스 △전무 이사 임문정 △이사대우 장윤진 △이사대우 임은용 ◇휴온스네이처 △이사대우 곽연길 ◇휴이노베이션 △이사대우 김영택

◆서울과학기술대 △신문방송사 주간 겸 홍보실장 편정민 △입학관리본부장 신현상 △대학교육혁신원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이상훈 △대학교육혁신원 교양교육연구센터장 최형섭

◆SBS미디어넷 △미디어솔루션본부장 김중훈

◆TV조선미디어랩 △영업마케팅국장 김형태 △영업마케팅국 마케팅2팀장 박동완 △영업시너지국 시너지팀장 차운창

◆아시아투데이 △노설심의실장 겸 이사 김이석

아워홈, 유덕상 대표이사 선임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은 신임 대표이사로 유덕상 총괄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유덕상 아워홈 신임 대표이사는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아워홈 전신인 LG유통에 입사해 영업, 개발, 기획 등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후 쿠강밀 사업부 기획팀 팀장, 개발부문장, 쿠강밀 사업부·레스토랑 사업부 총괄 등을 역임하며 사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유 신임 대표는 25년 이상 아워홈에서 근무하며 주력사업인 급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식음료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카인사이언스, 박지혜 CDO 영입

기능면역학 기반 면역질환 신약개발 기업인 카인사이언스는 개발본부를 신설하고 개발총괄임원(CDO)으로 CJ헬스케어 R&D전략실, 연구소, 임상개발실에서 비임상, 임상개발과 사업개발을 이끌어온 박지혜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지혜 부사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 의대에서 항생제 내성기전을 연구했다. 이후 CJ제일제당 제약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신약의 약리독성평가를 담당하였고, CJ헬스케어 의학평가센터장, 이노베이션(Innovation)팀장, 임상과학센터장을 역임한 신약개발 전문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드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현실적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로서 그 특징이나 전파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실체이다. 이 경우 최선의 방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최대한의 정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실체(Invisible Entity)’의 국경 간 이동에 의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한때 국민들이 열광하다가 현재는 공포 속에 떨고 있다. 그 실체는 계층 간 불평등과 바이러스로, 전자는 평판의 국경 간 이전이며 후자는 외부불경제 현상이다.

지난 2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돌비 극장에서 열린 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국제장편영화상은 물론 각본상, 감독상과 작품상까지 4개를 수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순수 한국어 대사로 된 영화로 기적을 일군 사건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의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도 ‘기생충’은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 상영관 수가 크게 늘며 인기리에 재상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봉준호 감독의 탁월한 연출 솜씨를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지만 주제 자체의 보편성, 즉 계층 간 불평등의 세계화가 기술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영국의 한

감독은 “장소를 런던으로만 바꿔도 영국 관객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그동안 문화적 우월성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 마음속으로 무시(?)해왔던 일본에서 BTS의 새 앨범이 오리콘차트 1위, 기생충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문화이론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평판의 국경 간 이동은 세계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취향에 맞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어필은 세계적 수요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튜브 등 기술 발전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국경 간 전파는 관리 측면에서 공해물질의 이동에 의한 국제 공공재 문제가 인간 간 전염이 가능한 형태로 전개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간 간 전염이 관

리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시초에 변종 바이러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우리 당국의 대응이 불려온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해물질은 기류에 따라 이동하여 막기가 어려워 발생지와의 협력에 의한 관리, 즉 공해물질 배출의 감소가 최선의 방안이지만 바이러스의 경우 사람의 이동에 의한 전염으로 적절한 관리에 의해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현실적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로서 그 특징이나 전파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실체이다. 이 경우 최선의 방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최대한의 정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 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협력이 결국 부품과 원자재 조달의 장애를 통해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의료계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잠복기에도 인체 감염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코로나바이러스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무지의 바이러스에 대해 진원지로부터의 원천적 차단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내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원천 차단한 국가가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청정국가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현재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경우 우한에서 감염된 신천지 교인이 예배에 참여하여 감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신천지 우한교회의 우리 국민이든 1차 감염원인 중국인이든 지난달 우한에서 감염 소문이 돌았던 초기부터 원천 차단하는 방역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와 함께 내국인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전염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에 전 국가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책발언대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정의당 대표 시절에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그 수강생들과 함께 독일도 다녀왔다. 모범적이라는 독일의 정당 문화를 배우고, 청년 정치인을 만나기 위한 방문이었다. 그곳에서 좌우 주류 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과 사회민주당(SPD)은 물론 좌파당(Die Linke)이나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같은 소수정당 청년 정치인을 두루 만났다.

놀랍게도 그들은 대부분 14~15세에 정치활동을 시작해 20대 중반에 당내 청년조직 대표나 청년당 당수를 하고 있었다.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당내에 별도의 청년당 조직을 두고 당수도 따로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독일 총리를 지낸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20대 때 독일 사회민주당 청년조직의 연방대표를 맡은 바 있다. 1985년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정부 수반인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의 경우 22세에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 유럽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낮은 편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 정당은 공익에 기여하는 젊은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지난해 국회는 청년기본법을 통과시키며 통계나 정책마다 제각각이었던 청년의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정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 청년은 무소속 김수민 의원 1명뿐이다.

청년 인구는 988만 명에 육박하며 이들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의 대표는 1명뿐이다.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얼굴은 따로 있다.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5.5세이며, 300명 의원 중 48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은 전체 인구의 0.035%에 불과하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국회의원 중

17%만이 여성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아주 일부만을 대표한다.

정치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각기 다른 사회집단을 대표해 공익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제한된 사회자원을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통해 분배해야 하므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정치 밖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러한 정치적 자질과 역량이 저절로 숙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당 조직을 통해 정치인을 훈련시킨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데뷔하는 이들은 대개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나서, ‘나도 정치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도전하게 된다. ‘50대, 남성, 변호사’가 대한민국 국회의 최대 다수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제한된 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 정치는 사회 변화를 이끌기는커녕 사회

변화에 가장 둔감한 곳이 되었다. 2년 전 우리 사회 성폭력의 치부를 드러낸 미투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당장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말했지만, 국회는 단 한 건의 미투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떠나 없이 4차 산업혁명을 패선 아이템처럼 말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비롯해 산업구조 변화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져올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정치인은 드물다.

정의당은 최근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당선권에 34세 이하 청년 5인을 배치하는 모험을 했다. 없는 살림에 무리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진보정치 아니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청년 정치는 정의당이 최고라는 말씀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 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같은 문제들은 지금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다음 세대는 더 큰 짐을 떠안게 된다. 청년들과 함께 21대 국회의 얼굴을 바꾸는 일에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했으면 한다.

청년정치, 왜 중요한가

이투데이, 말투데이

☆ 박용곤(朴容琨) 명언
“분수를 지킨다.”
두산그룹 명예회장. 한국 기업 최초로 연봉제, 토요 격주 휴무제를 도입하고 OB 맥주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두산그룹 성장을 이끌었다. 세계에서 ‘침묵의 거인’이라고 불린 그는 야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OB베어스 야구단을 창단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932~2019.

☆ 고사성어 / 지족지계(止足之戒)
제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아는 경계(警戒). 자신의 본분을 잊고 분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 결국 따라가지도 못하고 탈이 난다는 뜻이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는 뜻으로 노자(老子)가 주창한 처세 철학의 백미. 원전은 임방(任昉)의 왕문헌집서(王文憲集序).

☆ 시사상식/폴리코노미(Policonomy)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지표로 증명되는 실제 경기보다 경제주체가 체감하는 경기가 더 나쁜 만큼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이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 속담 / 사주에 없는 관을 쓰면 머리가 벗어진다
제 분에 넘치는 일을 억지로 이루어 놓으면 도리어 해롭다는 말.

☆ 유머 / 맹구를 시험에 들게 한 641번
맹구가 버스를 기다리던 중 경찰에게 “낙성대역에 가려면 몇 번을 타야 하나요?”라고 묻자 “여기서 기다리면 641번 버스가 올 거예요. 그걸 타면 낙성대역으로 갑니다”라고 알려줬다.

몇 시간 지나 정류장을 지나던 경찰이 맹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아니, 아직 버스가 안 왔나요?”라고 묻자 맹구의 대답. “걱정 마세요. 방금 640번째 버스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1대만 더 기다리면 돼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유진 산업부/eugene@

위기 속 빛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그렇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외쳐온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위기 대응은 어떨까. 이번 위기가 발생하기 전 기업들은 ‘상생’ ‘동반성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회적 가치를 키워 나가기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실제로도 기업들은 위기가 닥치자 수십

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기부 행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구할 수 없는 마스크 또한 사회에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근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금이 충분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일 수 있지만, 사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물량만 구입하고 있다”고 말하며 성숙한 기업의

모습을 보였다.

오비삼척(吾鼻三尺)의 상황이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제1의 과제’로 외치던 기업들이라 아쉬운 측면은 있다. 일부 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들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는 곳이 있다. 이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기업도 많다.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안다고 했던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산업생태계가 한층 성숙해지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줄 것을 기대한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기업들이 진가를 보여줄 때다.

‘차이나 게이트’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식의 괴소문이 가득했던 주말이었다. 30명 선으로 잘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잠시 마음을 놓았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 2000명으로, 다시 3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벌어진 일이다.

지난 일요일이었던 제101주년 삼일절, 포털 급상승 검색어에는 온종일 ‘차이나 게이트’라는 단어가 1위에 올랐다.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선족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연이어 올라왔기 때문이다.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해당 글에는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 쓰러워 이런 진실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응원 글의 작성자는) 대다수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이며,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도 모두 우리 손을 거친다”고 쓰여 있다. 다시 말해, 현 정권을 응원하는 게시글은 거의 100% 조선족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주한 한족 유학생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터넷상에서 중국의 조종과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해당 글은 ‘왜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논란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주말 내내 카페나 블로그 등에 엄청난 속도로 퍼져 나갔다. 확진자가 4000명을 돌파한 2일에도 ‘차이나 게이트’라는 키워드는 포털 급상승 검색어에 계속 순위를 바꾸며 자리를 지켰다. 일부

데스크칼럼

한 지 운

디지털뉴스룸 에디터



네티즌은 중국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정 반중 사이트를 ‘낚시 링크’로 몰래 삽입,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링크를 올리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소문의 시작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의 조직적 여론 조작 및 국권침탈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촉발됐다.

이 청원 글에는 “(2월) 25일까지 폭주하던 청와대의 중국발 트래픽(33%)은 한국인의 중국인 차단이 진행되자마자 귀신같이 줄어들어 현재는 0.53%의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과거 광우병, 사드 때부터 우한폐렴으로 나라 안팎이 분열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의 뒷배경에 중국(일명 차이나 게이트)이 있었다”라고 적었다.

일파만파로 소문이 확산하자, 네이버는 1일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데이터를 살펴보니 2018년 동계올림픽 당시 심판판정에 불만을 가진 중국 네티즌들이 달았던 네이버 뉴스 댓글 등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자료가 ‘차이나 게

이트’ 주장 근거로 쓰이고 있다는 것. 오히려 네이버는 댓글 속 중국 비중은 코로나 사태를 전후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9시 기준으로 네이버 뉴스 댓글 통계에서 중국에서 작성한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0.57%로 미국에 이어 3위에 불과했다. 중국발 네이버 뉴스 댓글 비중은 1월 0.6~0.7%를 오가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던 1월 말~2월 초 0.4%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4위를 오갔다. 의도를 가진 특정 국가 세력이 활동하는 낚새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발표다.

‘공포’가 ‘무지함’과 화학작용을 하면 ‘혐오’가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중국 탓을 할 때도, 일본을 비웃을 때도 아니다. 공포를 이용해 편 가르기하려는 집단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들의 움직임에는 뗏뗏하지 않은 의도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보다는 자발적으로 대구로 달려간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익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더 주목하자. 시장 문은 닫았지만,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밤새 도시락을 싣 칠성야시장 상인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자.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 공개가 두려움을 준다”는 몇 나라의 궤변과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단호한 원칙과 투명성, 침착한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한 응원도 지금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다.

goguma@

박선현의 편



금융부 차장

“시장의 쓴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조직문화 개편안 중 하나다. 전현직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감원 OB(퇴직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불만과 조언을 듣겠다는 내용이다. ‘절대 갑’ 오명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윤석현 원장은 이와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당국 책임론이 부상하자, 그는 국회 정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제를 인지하고, 비판이 쏟아진 지 반년 지난 사과였다.

이마저도 “인력과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책임자를 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융사에 겨룰 값 끝은 버리면서, 당국 책임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송구’란 한 단어와 함께 시장의 메아리로 되돌렸다.

썩을 싫어하는 호랑이, 윤석현 원장

윤 원장은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소비자 보호처(금소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원장보 2명을 총괄 책임자로 앉히고, 상품 약관 심사와 판매상시 감시, 금융사 검사, 제재 안전 협의 등 막강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부서를 13개로 두 배 확대하고,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절대갑’에 맞먹는 ‘슈퍼파워’다. 곧장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상충된 가치이기 때문이다.

금융사 부채가 많아졌다고 가정하자. 재무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감원은 공격적 영업을 용인해 줄 수밖에 없다.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금소처를 분리했고, 우리도 8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독립을 지시했고,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결국 감사원이 직

접 나서 2월 초 분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윤 원장은 한 달째 묵묵부답이다.

심지어 그가 ‘슈퍼맨’으로 불리는 금소처장에 자신과 비슷한 철학을 가진 A 교수를 밀고 있다는 후문까지 들린다.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금감원장 힘만 더 키우려는 의도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윤 원장은 금융당국 수장에 오르기 전 정부와 업계에 쓴소리를 마다치 않던 소신 있는 학자였다. “취약한 금융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 개입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면 낙하산부터 근절해야 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 덕에 금융감독의 수장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수장이 된 지금도 그는 화자(話者)에 머물러 있다. “개(금융사) 놀리며 굶감(감독 권한)만 찾는 호랑이(윤석현)가 썩(쓴소리)을 먹을 리 있겠는가”라는 한 금융사 임원의 한탄이 그에게 들리길 바란다.

sunhyun@

사설

코로나 추정 6.2조+α, 속도가 최우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때 집행된 세출확대분을 뛰어넘는 규모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코로나19 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7일까지 처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자금 용도도 방역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긴급예산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 안정화 용자, 입원·격리자의 생활비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초저금리 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확산일로이고 경기는 얼어붙었다. 확진자는 2일 0시 기준 4212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2명이나 발생했다. 검사진행자수는 3만3799명에 이른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2일 만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환자는 급증하는데 사실상 통제불능의 상황이다.

경제는 완전히 엉망이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기 직전 조사된 2월 소비자동향지수(C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대비 각각 7.3포인트와 10포인트씩 급락했다. CCSI 하락폭은 2015년 6월 메르스때 이후, BSI는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역

대 최대 하락폭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1%로 낮춰잡았다. 추경편성을 감안하고, 3월 편성과 4월 집행을 가정한 전망인데도 그렇다. 추경을 빼면 2% 턱걸이도 어렵다고 본 셈이다. 이미 주요 투자는 행(IB)들은 1%대 성장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추경 투입이 사태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달리 방법도 없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규모가 아니라, 돈이 풀려야 할 곳에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부터 집행의 속도가 관건이다. 2014년 3.2%에서 2015년 메르스로 2%대 추락이 겹쳐졌던 우리 경제 성장률이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2.8% 방어에 성공한 경험도 있다. 물론 4·15 총선을 앞두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새는 곳을 없애고, 반드시 써야 할 곳에 돈이 흘러가도록 꼼꼼하고 확실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 추경안이 5일 제출되고 17일까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부터 정쟁을 멈추고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금도 빈틈없이 자금 수요 파악과 지출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건강 100세

방광암을 부르는 흡연

혈뇨란 소변에 피가 나는 증상으로 콩팥에서 요도까지 소변이 흐르는 경로에서 피가 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눈으로 확인되는 육안적 혈뇨이며 상태에 따라 붉은색이 아닌 검붉은색 혹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혈뇨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눈으로 붉게 보이지는 않지만 현미경 검사로 적혈구가 보이는 경우를 현미경적 혈뇨라고 한다.

50대 이상의 남성에서 발생하는 혈뇨의 30%는 방광암이 원인이므로 40대 이상에서 혈뇨 발생 시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오랜 기간 흡연한 사람의 경우 갑자기 혈뇨가 나오면 방광암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방광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소와 달리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흡연은 방광암 발병위험을 2~10배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의 경우 방광암의 50~65%가, 여성의 경우 20

~30%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방광암의 발생 빈도는 흡연 기간 및 흡연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흡연을 시작한 시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청소년기에는 직접흡연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도 방광암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변 내 혈액이나 염증 여부를 확인하고 소변검사 및 요세포검사를 비롯해 방광경 검사를 시행해 방광암으로 1차 진단이 되면 필요할 경우 CT검사와 초음파, MRI 검사 등도 함께 시행해 볼 수 있다.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국한돼 있는 비근침윤성(표재성) 방광암은 요도를 통해 방광경을 삽입한 뒤 암을 절제경으로 제거하는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로, 종양의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

혈뇨는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이를 무시하면 안 되며 비뇨의학과적 진료 및 검사를 통해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

김태형 중앙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당신의 마음, 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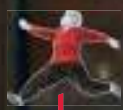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락이
쌓여가는 만큼
할머니의 아쉬움도
쌓여갑니다.

답하고 싶지만
스마트폰이 어렵기만 한
어르신들을 위해

SK텔레콤 매장에서
T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
어렵지 않게 전할 수 있도록

기술은 언제나
당신을 향합니다



시대 생활이 되다

T스마트폰 교실: 전국 350여개 SK텔레콤 매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